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83호 【루계 제25692호】 주체106(2017)년 7월 2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발행, 인터네트에 게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자주성을 견지하자》를 벨라루씨에서 발행하였다.

로작발행식이 빼. 엠. 마쉐로브명칭 위쩹스크국립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발행식에는 벨라루씨잡지 《사회교양》 책임주필, 빼. 엠. 마쉐로브명칭 위쩹스크국립종합대학 학부장, 교직원, 학생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림시대리대사, 대사관성원이 참가하였다.

잡지 《사회교양》 책임주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을 연구하는것은 조선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는데서 필수적인것으로 된다. 위인의 저서들은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광범히 출판보급되고있다.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명백히 밝힌 김일성동지의 이 로작은 비록 수십년전에 발표되였으나 오늘도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를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4돐에 즈음하여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판게축진협회가 6월 19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홈페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김일성동지회고 체스꼬위원회가 6월 17일 쁘라하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체스꼬슬로벤스꼬룡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인 배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 요제프 쎄르비스따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출판보도물들을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며 회고모임, 업적토론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일성각하회고 오스트리아위원회가 6월 19일 쉔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판게축진협회 서기장이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일성주석회고 나이제리아인민전보당위원회가 6월 21일에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전국위원장 다미안 오그본나가, 부위원장으로 법률고문 에지케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회고모임,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국가령도자 여러 나라 인사들 강조

20세기의 정치원로이시며 희세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위인칭송의 메아리가 세월과 더불어 이 행성우에 더욱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세계 진보적인사들은 전문들을 통하여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인류의 태양으로 열렬히 칭송하면서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진달래아동기금 회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희세의 영웅, 탁월한 정치가, 비범한 군사전략가이시다.

김일성주석님은 복잡다단한 국제정세를 명철하게 분석하시고 높은 정치실력으로 세계정치를 주도해나가신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국가령도자이시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류의 해방을 위한 위대한 혁명학설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복구건설,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시였다.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해 헌신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 자주,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드시고 세계혁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김일성주석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라고 하면서 남아프리카 음푸말랑가주주체사상연구소소 위원장은 주체사상의 창시는 제국주의침략과 략탈,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세계의 모든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그이께서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시키신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번영하고 강위력한 나라로 되였다고 격찬하였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과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은 20세기의 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져있다.

김일성동지는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신 열렬한 애국자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다.

또한 전후 민족우에서 천리마의 나래를 펼쳐주시여 조선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진정한 인민의 수령으로서 사회주의리념과 독립을 견결히 수호하신 혁명가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로므니아 새 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로므니아전국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열렬한 애국자, 견결한 국제주의자이시다.

그이의 업적중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상리론업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고요한 서재에서가 아니라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모든 활동의 기초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한 삶을 누리려는 진보적인류의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오스트리아 쉔에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청년소조, 앙골라 엠겐꼬회사의 인사들도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각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인류자주위업실현의 고귀한 진리를 밝혀주는 대백과전서이라고 하면서 절세위인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찬양하였다.

세계녀성운동 녀성권리조정협회 파키스탄지부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을 불패의 강국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걸출한 수령이시다.

자주시대를 개척하시고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김일성동지는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영생하실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년분계획을 완수한 고경찬영웅소대원들처럼 승전포성을 련이어 울리자

드세찬 공격전으로 가물과의 투쟁에 계속 박차를 황해북도에서

황해북도의 협동벌이 총동원의 열기로 끓고있다. 황주군으로부터 분계연선 장풍군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결사전이 벌어지고있다. 사회주의 푸른 전야마다 신념의 붉은기들이 세차게 펄럭이고 자연과의 격전, 가물과의 투쟁에서 기어이 승리자가 되려는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기세로 대지는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는 지금 매일 수십만명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성, 중앙기관 일군들, 공장, 기업소로동자들과 가두인민반원들이 가물피해막이전투에 떨쳐나 수천정보의 포전을 적시고있다. 특히 6월 30일 하루만 놓고보아도 무려 천여대의 뜨락또르와 자동차, 물차, 수천대의 관구지와 각각 수백대의 소형양수기, 원동기가 달린 이동식양수기, 1만 수천대의 분무기가 가물피해막이전투에 리용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며 늘 일감을 앞아주고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해나가야 합니다.》

국심한 가물과 고온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있는 도의 가는 곳마다에서 전민총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물이 부족되면 하늘만 쳐다보던 낡은 사상관점에 종지부를 찍고 분발하여 일떠서 짧은 기간에 각각 수백개의 우물과 굴포를 새로 팠으며 수천개소에 물주머니를 만들었다. 그리고 매일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논들에 대한 물주기와 잎덧비료주기, 논바닥긁어주기를 진행하고있다.

황주군에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물론 군안의 주민들이 모두 떨쳐나 수백대의 뜨락또르, 천수백대의 달구지, 물을 운반할수 있는 수십대의 륜전기계와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매일 수백정보의 포전에 물을 주고있다. 특히 군에 달려나온 인민군군인들은 백두산혁명강군의 기상을 떨치며 전격적으로 일판을 벌려나가고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인 인민군대의 뒤를 따라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도 소형양수기, 물관 등 여러가지 관수설비를 가지고 전투를 벌리고있다.

군안의 농업근로자들도 분무기를 리용하여 영양수를 강냉이포기마다 주는 방법으로 물을 절약하면서도 가물피해막이에서 효과성을 높이고있다.

중화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가물과의 투쟁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받아안고 일제히 전투에 진입하였다. 일군들은 가물과의 투쟁을 한두번 물주기를 하는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매일 당장 비가 내린다고 해도 내밀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쳐나가고있다.

가물피해막이전투에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은 굴착기를 비롯하여 기계수단들을 가지고 여러개의 굴포과기를 단숨에 해제끼였으며 자동차 등 륜전기계들과 운반수단들을 리용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장풍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다.

이들은 우리의 일심단결이 얼마나 위력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의 총동원이 어떤것인가를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서 다시금 만방에 과시하려는 불타는 열의밑에 애국총정의 땀을 바쳐가고있다.

매일 수만명의 군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떨쳐나 혁신적성과를 창조하고있다. 인민군군인들이 유압식굴착기로 굴포화장공사를 전격적으로 진행한데 이어 로동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물주기를 하면서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다. 군인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물속에도 뛰여들고 산악도 단숨에 허물어내리려는 결사의 각오안고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사회주의협동벌을 지켜가고있다.

금천군에서도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한 애국총정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은 한몸이 그대로 양수기가 되고 심장의 피를 쟁그리 쏟아부어서라도 사회주의전야를 더 푸르게 가꾸는데 적극 이바지하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가물과의 격전에서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인민군군인들이 단 3일동안에 10여km구간의 물길공사를 진행하여 수백정보의 포전을 적실수 있게 하였다.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물차 등 각종 륜전기계와 관수설비들을 리용하여 가물피해막이전투를 혁명적으로 하고있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물주기와 함께 고농도린세균비료,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천연생물활성제 등 갖가지 대용비료와 성장촉진제들을 주어 가물피해를 막고있다.

시흥, 정산, 린산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시, 군들에서도 사회주의의 위력, 집단주의의 위력으로 가물피해를 막고 당면한 영농공정을 힘있게 추진시켜 뜻깊은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려는 당의 의도를 불타는 충정과 실천으로 받들어가고있다.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불타는 열의밑에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의 애국적헌신성에 떠받들려 협동벌들은 가물피해막이전투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 날이 갈수록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윤용호

최북단의 전야에 타오르는 혁신의 불길

경원군에서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가물피해막이전투장들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는 지금 최북단 경원군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김매기전투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군적으로 논밭세벌김매기가 매일 평균 전체 면적의 11%씩 진행되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2배의 높은 실적이 기록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온 나라가 당정책옹위전, 사회주의조국존엄사수전으로 들끓고있는 격동적인 분위기에 맞게 군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김매기전투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협동농장들에 나가 포전들을 일일이 밟아보고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다음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논밭김매기를 다그치도록 전투작전과 지휘를 제기있게 해나가고있다.

세벌김매기성과 계속 확대

농포협동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오늘의 알곡증산투쟁은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위하고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천하기 위한 수령결사옹위전, 당정책관철전이라는것을 뼈에 새기고 포전별, 날자별 김매기계획을 면밀하게 세운데 맞게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그들은 농업근로자들속에 아무리 많은 비료를 주어도 농작물보다 생활력과 토양영양성분흡수력이 센 김이 많으면 그 효과를 높일수 없지만 김을 잘 잡으면 소출을 더 낼수 있다는것을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자신들부터 먼저 이랑을 타고앉아 헌신의 구슬땀을 흘리며 김매기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통당협동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드높은 자각을 안고 논밭세벌김매기에서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이들은 김을 한번 더 매면 비료를 한번 더 준것과 같다는것을 명심하고 논밭두벌김매기를 지난해보다 한주일 앞당겨 끝낸 기세로 세벌김매기에서도 현일실적을 올리고있다. 높은 알곡증산과를 이룩하고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뻣뻣이 들어설 일념안고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은 장마철에 피지는 속도가 빠른 잡풀들이 돋아나지 못하게 북을 주면서 한포기한포기 알심있게 김을 매고있다.

김매기실적에 알곡증수의 또 하나의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있는 중영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농장에서는 축력제초기를 리용하여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땅판리와 김매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지난 시기 경험에 토대하여 올해 그 리용률을 훨씬 더 높이고있다. 분만이나라 작업반별, 분조별, 포전담당자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김매기를 일정계획대로 드팀없이 내밀고있다.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높이 울려퍼진 뜻깊은 땅에 기어이 풍년농악소리 울려갈 결의로 가슴끓이며 김매기성과를 날로 확대해나가고있는 군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올해 알곡고지점령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돌격대활동으로 석탄증산투쟁 힘있게 추동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청년돌격대활동과 녀맹돌격대활동이 활발히 벌어져 석탄증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청년동맹과 녀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이 총발동되여 대고조진군으로 무궁무궁 뚫게 하고 동맹원들모두가 혁신자, 만리마속도의 창조자가 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올해 정초 일군들이 청년돌격대들을 한개 단위씩 맡고나가 돌격대원들을 석탄증산투쟁에로 불러일으키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차광수청년돌격대원들에게 신발, 내의, 솜옷 등을 마련해주면서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고있다. 당위원장 신창남동무를 비롯한 련합기업소일군들은 룡등탄광 김광철청년돌격대와 룡수탄광 리수복청년돌격대가 일하는 막장들에 들어가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안겨주고 일도 함께 하면서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룡등탄광의 일군들은 차광수청년돌격대원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고있다. 일군들은 합숙과 침실, 세목장 등을 훌륭히 꾸려주어 돌격대원들이 아무런 생활상불편을 모르고 석탄생산에 떨쳐나서도록 고무해주고있다.

이에 고무된 룡등탄광 김광철청년돌격대의 돌격대원들은 백두산영웅청년정신과 강원도정신으로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지난 4월 10일까지 년간복구굴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룡수탄광 리수복청년돌격대의 돌격대원들도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년간계획을 지난 6월 19일까지 앞당겨 끝내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그들은 만리마선구자대회전까지 3 000여t의 석탄을 증산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증산돌격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룡등탄광의 차광수청년돌격대원들은 매일 석탄생산과제를 1.2배이상 넘쳐 수행하면서 만리마속도창조대진의 진렬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경청년동맹일군들을 대장으로 하는 청년돌격대활동도 활발히 벌려 석탄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룡등탄광의 12개의 갱과 룡수탄광의 5개의 갱에서 작업굴진청년돌격대가 조직되여 백수십명의 청년들이 작업굴진과제들을 솔선 맡아해제끼면서 증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녀맹돌격대활동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련합기업소 녀맹위원장 김영숙동무를 비롯한 녀맹일군들은 녀맹원들을 불러일으켜 석탄증산투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룡등로동자구 초급녀맹위원장 박란옥, 룡수로동자구 초급녀맹위원장 김춘녀동무를 비롯한 녀맹일군들과 수십명의 녀맹원들은 남편들과 석탄생산을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지원물자를 안고 탄부들을 찾아가 일손을 도와주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녀맹원들은 살림집건설장과 산림복구전투장들에도 달려나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조선녀성의 슬기와 기개를 높이 떨치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혁신자속하모임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석탄생산의 앞장에 선 청년들과 녀맹원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정치적평가도 해주면서 그들을 새로운 위훈에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더 높은 석탄증산으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빛내이려는 불타는 한마음안고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청년돌격대원들과 녀맹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갱막장들은 혁신과 비약의 기상으로 약동하고있으며 석탄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년간 인민경제계획 빛나게 완수 개성타올공장에서

련합기업소에서—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상원세멘트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기둥높이 세멘트생산에서

개성타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의 진렬에 설 일념안고 집단적혁신을 일으킨 공장에서는 지난 6월 13일까지 년간공업총생산액은 물론 지표별생산계획을 100%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합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이 나래치도록 하기 위한 화선식선동사업을 힘있게 조직진행하였다.

참모부에서는 년간계획을 6월 19일전으로 끝내기 위한 전투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으며 입생산 및 재정총화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갔다.

일군들은 현판단위들과의 협동밑에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였으며 대중의 앞장에서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나갔다.

직포공, 기대공들은 직기들을 애호관리하고 기대들에 필요한 예비부속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리용함으로써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였다.

기술준비실장 전대근동무는 리용년한이 오래된 직기들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퇴치하고 날실털기장치를 새로 창안하여 단위시간당 천생산량을 3배로 늘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기능공들과 지혜를 합쳐 필염색기의 치차식전동장치를 사슬식전동장치로 개조하여 설비리용률을 높이고 생산성을 1.5배로 장성시키였다.

만리마기수, 선구자가 될 일념으로 자신들의 심장을 불태우며 직포작업반, 준비작업반, 재봉작업반, 공무작업반의 로동자들이 사회주의경쟁열풍속에 생산돌격전을 치렬하게 벌리였다.

직포작업반의 로동자들은 기본공정을 맡은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과감한 돌격전을 벌려 매일 평균 천생산계획을 200%로 수행하였다. 작업반장 한일선동무는 그날 계획은 무조건 그날로 수행하도록 작업조직을 짜고들어 진행하였으며 김영란, 민영숙동무들은 철야전투를 힘있게 벌려 지난 5월말 2년분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선행공정을 맡은 준비작업반의 로동자들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높이 염색, 합사, 연사 등 여러 생산공정을 치차처럼 맞물려 흐르게 함으로써 기본지표생산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떳떳이 맞이할 신심과 의지를 가다듬으며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가고있다.

전혜영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돌격 앞으로!

력사적인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지금 온 나라가 노도의 기상으로 달리고있다.

만리마선구자, 이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훌륭한 아들딸들에게 주는 값높은 칭호이다.

오늘의 총공격전, 총결사전의 일선은 마땅히 조선로동당원들의 위치이다.

그렇다. 자랑찬 승리자들의 대회는 혁명의 전위투사인 조선로동당원들을 부른다.

※ ※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권위는 수백만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중하다.

만리마선구자대회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발휘되고있는 우리 인민의 비상한 열의와 앙양된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발기된 승리자들의 력사적인 대회합으로 된다.

준엄한 투쟁의 폭풍속에서 언제나 우리 당을 받들어온 조선로동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의 령도적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는것보다 더 성스러운 사명은 없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당원들이 시대와 인민앞에 지닌 본분을 다하여야 할 책임적인 시기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은 언제나 당원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혁명과업수행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고 군중을 이끌어나가는 선봉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군중을 이끌어나가는 선봉투사인 조선로동당원은 누구보다 당과 수령을 일편단심 받드는 신념이 투철해야 한다.

당원들에게 있어서 신념을 저버린다는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이 혁명적신념에 뿌리를 두면 진심이 되지만 일시적인 흥분에서 출발하면 가식이 된다. 이것은 생활의 법칙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의로운 위업에 한몸바칠 결심을 품고 나선 혁명가는 부서져도 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될지언정 자기의 신념을 잃지 말아야 하고 눈속에 파묻혀도 푸름이 변하지 않는 소나무처럼 절창속에서 일생을 마칠지언정 자기의 신념을 버리지 말아야 하며 불에 타도 푸름을 굽히지 않는 참대처럼 불에 타죽을지언정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말아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를 청산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당이 출현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그 과정에는 승리한 혁명도 있고 실패하거나 중도에 파절당한 혁명도 있으며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한 당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당들도 있다. 당을 이루는 당원들의 신념과 적지 않게 관련된 문제였다.

예속과 굴종을 강요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자주적인민으로 당당히 사는 길은 혁명적신념을 지키는 길이다. 신념이 없으면 혁명을 할수 없고 시련을 이겨낼수 없으며 조선로동당원으로서의 존엄과 지조도 지켜낼수 없다.

혁명적신념, 바로 여기에 당원들의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진가가 있다는것을 자각한 당원은 신념의 강자로 생을 빛내일수 있다.

조선로동당원, 이 값높은 영예는 오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 난관극복에서의 불요불굴성과 영웅성의 상징으로 빛난다.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나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당원은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선봉투사이라고, 당원들은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교양하고 이끌어주어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타번지게 하는 선군시대의 선봉투사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원들이 당성단련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당원은 항상 당원답게 심장이 뛰여야 하며 당원다운 신념과 결심을 가지고 당원다운 행동을 하여야 한다. 당원들은 적의 화구를 막는 심정으로 시대의 풍랑을 앞장서 헤쳐나가야 하며 당을 견결히 받들고 사회주의기치를 옹호고수하여야 한다.

어떤 조건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며 개인의 리익보다 당과 혁명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몸뚱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며 말보다도 실천을 앞세우는것이 당성발현이다.

당성이 비상히 높았던 전세대 당원들처럼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당원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당부이다.

미제의 발악적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놈들은 북조선의 도시들을 초토화함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고 이틀간에 걸쳐 수풍발전소도 폭격하였다.

락원으로 오던 전기가 끊어졌다. 그러나 락원의 10명당원들은 다이야를 떼여낸 차바퀴에 피대를 감아가지고 전기를 일구었다.

락원의 로동계급이 유압식굴착기를 만들 때의 일이다.

당앞에 결의다진 날자가 박두할수록 모두의 손에 땀이 배였다. 그런데 머칠밤을 꼬박 밝히며 작은 원추치차에 문제가 있다는것이 아닌가.

긴장한 마음을 안고 지켜보는 가운데 재고 또 재여본 검사공이 이만하면 허용오차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니 일없을것이라고 하면서 합격표시를 하였다.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쉴 때 굳직한 쇠메를 들고 원추치차앞에 나서는 사람이 있었다. 10명당원중의 한명이였다.

《우리가 만드는 하나하나의 제품에 당의 권위와 우리 당원들의 당적량심이 비낀단 말이요. 우리의 당적량심에 허용오차란 웬말이요.》

이것이 바로 10명당원들의 당성이였다.

언제나 락원의 이 정신세계를 소중히 안고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전 6월 어느날에도 오늘 우리 당은 수백만 당원들이 선군조선의 빛나는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용맹한 결사대, 적극적인 선봉대, 능숙한 선동대가 될것을 기대하고있다고, 전체 당원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기고 대고조의 선봉에서 오늘의 순간순간을 값높은 헌신과 위훈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당원들은 락원의 10명당원들처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원들은 조선로동당의 당원이라는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한몸이 그대로 옥탑이 되여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감화시키고 기적과 혁신에로 이끌어나가야 하며 어려운 과업이 제기될 때 남먼저 기발을 들고나서는 선구자가 되고 땀을 흘려도 남보다 더 많이 흘리고 짐을 져도 남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며 혁명과업수행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는 위훈자, 혁신자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지 못하고서는 그 어떤 총정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으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섰다고는 더욱 말할수 없다. 이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였다.

이에 대하여 강조하시는 기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연기형상을 더 좋게, 더 많이 창조하는 배우가 바로 충실한 배우이고 사람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좋은 글을 많이 써내는 작가, 기자가 진실로 혁명적인 작가이고 기자이며 가치있는 발명과 기술혁신, 과학적성과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과학자, 기술자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과학자, 기술자이라고, 우리 당에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한다고…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 혁명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적극 내세워야 할 사람도 누가 보건말건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는 사람들,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적극 내세워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간곡한 교시를 뼈에 새긴 당원만이 오늘의 벅찬 만리마시대와 심장의 박동도, 발걸음도 함께 할수 있다.

자력자강, 이는 백두산대국의 생명이며 우리를 질식시키기 위해 미쳐날뛰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정수리를 내려치는 위력한 보검이다.

강원땅의 로동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거창한 발전소를 건설할 작전을 하고 착공의 첫삽을 박을 때 자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시작한것은 아니였다. 몸이 가루가 될지언정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꽃피워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였다.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아 멸의멸제재봉동이를 휘두르며 메지어 달려드는 원쑤들을 기절초풍케 해야 한다는 원쑤격멸의 투지였다.

력사가 보여주는것처럼 외세의존은 예속의 길, 망국의 길이며 자력자강만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하고 륭성번영을 담보하는 길이다.

백두밀림에 메아리쳤던 연길폭탄정신은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은 물론 래일에도 꿋꿋이 이어가야 할 조선의 위대한 정신이다.

자력자강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으며 미래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전에 강원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자력갱생의 투사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당원들이 강원도의 모범을 따라배워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걸린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자기 힘에 대한 확신, 제힘을 믿고 떨쳐나선 사람만이 자력자강의 주로에 확신성있게 들어서서 만리마에 박차를 가할수 있다. 자력자강의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다.

자력자강, 이는 완강한 난관극복, 간고분투를 전제로 한다.

우리의 당원들은 연길폭탄의 력사와 천리마시대의 서사시를 떠우며 그 정신을 자양분으로 성장한 주체사상조국의 당원들이다.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려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는 길이 곧 자력자강의 지름길이다.

새 기술의 개척자, 전초병, 세기를 주름잡는 만리마시대는 이런 형의 당원들을 부른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실천하기 위해 피를 끓이는 당원, 왕성한 투지와 정열, 강한 의지와 인내성을 체질화한 당원들만이 만리마의 고삐를 틀어쥐고 폭풍쳐 내달릴수 있다.

조선로동당원의 남다른 풍모는 당적량심이다.

당적량심은 당과 수령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믿음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보답하려는 고결한 마음이다.

조선로동당원들에게 있어서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당적량심은 목숨보다 귀중하다. 그처럼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교시가 오늘도 우리 당원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준다.

사람은 사회적존재로서 량심이 있어야 사람다운 품격을 지닐수 있고 사람답게 살수 있다. 사람이 량심적으로 성실하게 살아나갈 때에는 사회와 집단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행복을 누릴수 있지만 량심을 저버릴 때에는 인간의 면모를 상실하고 온갖 비행과 죄악을 다 저지를수 있고 마음의 안정도, 삶의 보람도 있을수 없고 사회적비난과 저주의 대상으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

량심을 버린다는것은 당원으로서 정치적생명을 버리는것과 같다. 당원은 하루를 살아도 순결한 당적량심을 가지고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당원으로서의 존엄을 빛내이는 길을 묵묵히 걸어야 한다.

당적량심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조하신 거목과 뿌리사이의 관계를 되새기게 된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당원들이 열렬한 애국투사가 되자면 조국을 받드는 뿌리가 되려는 헌신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국과 애국자들사이의 관계는 거목과 뿌리사이의 관계와 같다고, 조국이라는 거목이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부강번영하자면 뿌리와 같은 애국자들이 많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튼튼한 뿌리가 없는 나무가 거목으로 될수 없듯이 조국도 뿌리와 같은 애국자들이 없으면 강성번영할수 없다.

조국의 뿌리가 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원들이 지녀야 할 인생관이며 당적량심이다.

그 어떤 광풍에도 나무가 넘어지지 않게 대지를 꽉 그러안은 뿌리와 같이 한몸바쳐 조국을 떠받드는 당원,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쉬임없이 줄기에 영양소를 주는 뿌리처럼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 조국의 륭성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사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이 이런 열렬한 애국자가 되여 이 땅의 모든 곳에 억척같이 뿌리를 내릴것을 바라고계신다.

당생활은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단련시키는 용광로이다. 당과 령도자를 높이 받들려는 신념과 충정은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더욱 굳게 다져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은 당적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당의 유일적령도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정세가 복잡하고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가 방대할수록 당생활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당원들이 당적지도와 통제에서 벗어나면 점차 변질되게 되며 나중에는 반혁명의 길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였다.

내외정세가 복잡한 시기에 당원들의 당생활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지 않으면 그들이 외부의 압력과 공세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할수 있다는것이 력사의 교훈이다.

자각적인 당생활은 참된 당원으로 사는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다.

자각적인 당생활이 몸에 밴 당원은 제멋대로 자라는 나무의 아지를 전정하듯 인격형성과 혁명적성장과정에 불필요한것들이 자라지 못하게 자기를 부단히 채찍질하면서 각성한다.

때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각적인 당생활을 습관화하여 그것없이는 공기나 물이 없는 곳에 있는것처럼 답답증을 느끼게 되여야 한다는 조직성의 원리로 우리 당원들의 성장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높추어주어도 높추어지지 않는것이 주체형의 혁명가인 조선로동당원의 고유한 기질이다.

잡아당겨야 따라오는 사람보다 높추어놓아도 따라오는 사람이 고도의 자각으로 당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의 당적량심이 가려키는대로 행동하는 높은 자각성이 뼈속까지 밴 당원만이 그 어떤 성과에도 자만도취되거나 마음의 랑개를 풀어놓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치닫아오를수 있으며 충정의 한길에서 영원히 당과 운명을 함께 할수 있다.

조선로동당원들은 만리마선구자대회에 내놓을 자랑찬 선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늘의 순간순간을 아름다운 자욱으로 수놓아가자.

이 세상에 우리 조선로동당원들처럼 당의 창건자, 령도자에게 영원히 충정다하는 일편단심의 대오는 없으며 바로 이 무성한 철의 대오로 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권위가 비상히 과시되는것이다.

이 충정의 대오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어깨를 겯고 팔을 끼고 질풍노도처 내달리기에 만리마선구자대회는 위대한 승리자들의 대회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승리한 래일을 내다보시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2(1953)년 1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께서 계시는 최고사령부로 간 몇몇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남판개공사와 관련한 준비사업을 함께 의논해보자고 동무들을 불렀다고 하시기때문이였다.

(전쟁이 한창인 이때에 판개공사라니…)

이러한 일군들의 생각을 헤아리신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미제침략자들이 강한것처럼 허장성세하지만 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르시였다.

미제침략자들이 패배하고 우리가 승리한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전후에 해야 할 일을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혁명가들은 언제나 미래를 앞당길줄 알아야 한다. …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동무들은 그 준비사업을 지금부터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미제날강도들은 평남판개시설을 모조리 파괴했지만 우리는 미국놈들이 파괴한 그 자리에 세계1등급의 평남판개를 건설합시다, 보란듯이 말입니다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전쟁이 한창이던 이 땅에서는 판개공사준비라는 창조의 거창한 사업이 힘차게 벌어질수 있게 되였다.

마을을 지척에 두시고도

주체48(1959)년 8월 어느날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마을을 가까이하자 승용차를 마을과 좀 떨어진 곳으로 돌리도록 하시였다.

(점심식사전에 또 무슨 사업을 하시려는가?)

그이와 동행한 한 일군이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에 승용차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신 강기슭의 정평한 풀밭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척에 있는 마을을 바라보시고나서 일군들에게 오늘 점심식사는 여기서 하고 떠나자고 하시며 풀밭에 스스럼없이 앉으시였다.

그때에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왜 승용차를 마을로 가 아니라 강변의 풀밭으로 돌리도록 하시였는가 하는 의도를 비로소 깨닫게 되였다.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께 마을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인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고 하시며 마음은 가깝지만 여기서 점심을 하자고 이르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을 뵙기 위해 마을에 와있던 도의 일군들이 달려왔다.

마을을 지척에 두시고도 풀밭에서 검소한 식사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인사를 올리는 그들의 목소리는 모두 젖어있었다. 그들중 한 일군이 울먹이며 이야기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번에도 이렇게 바깥에서 식사를 하시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동행한 일군은 그에게 이러한 대답밖에 줄수가 없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지난날도 오늘도 그러하셨지만 앞으로도 그러하실것입니다.》

켜지 못한 전등

주체66(1977)년 8월 어느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고 금수산의사당(당시)으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관 복도앞에 이르시자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이 영문을 몰라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데 그이께서는 복도에 왜 이렇게 전등을 많이 켜놓았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그에 대하여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지금 전기때문에 인민들이 불편을 느끼고있는데 우리가 전등을 이렇게 많이 켜놓으면 되겠는가고, 복도가 어두워서 불을 켜놓아야 한다면 드문드문 켜놓으라고 이르시였다.

며칠후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이 념려되여 복도의 전등을 또다시 모두 켜놓았다.

그것을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시 일군을 부르시여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전기가 생산되여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로력이 드는지 동무는 아마 잘 모를것이다. 지금 로동자들은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회의에서 전기절약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릴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그런데 우리라고 례외로 되여서야 되겠는가. 동무의 마음은 알만 하지만 앞으로는 꼭 필요한 장소에만 불을 켜놓아야 하겠다. …

이렇게 되여 금수산의사당 복도에는 켜지 못한 전등들이 있게 되였다.

금수산의사당의 전등은 비록 켜지지 못하였지만 일군들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숭고한 애국심이 더 굳게 자리잡게 되였다.

본사기자 정 순 학

청산리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 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열의에 넘쳐있다. —장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한 광 명 찍음

애국주의교양을 참신하게

구장군식료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당원들과 종업원들이 뜨거운 애국심을 간직하고 오늘의 총진군길에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다 바쳐나가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에 대한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공장의 모든 당원들과 종업원들이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초급당일군은 현장에 내려가 종업원들속에 김정일애국주의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자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공장초급당일군의 호소는 공장의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지금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릴 불같은 열의밑에 당면한 혁명과업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조 건 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룬디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부줌부라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삐에르 은쿠룬지자각하

나는 부룬디독립 55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공동의 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민족의 자주권수호와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6(2017)년 7월 1일 평 양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깊이 심어주어

령대탄광 초급당위원회

에서 당원들과 탄부들속에 항일혁명투사들이 높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 교양사업의 중심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일군들이 생동한 자료들을 가지고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화선식선동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갱에 나간 한 일군은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에 대하여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제일생명이라고 하면서 모두다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높은 석탄생산성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전위투사가 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로농통신원 김 봉 일

증송의 기적소리에 실려오는 못 잊을 사연

얼마전 철도성의 한 일군을 만났을 때였다. 그는 온 나라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다발적이며 련발적인 성과들을 이룩해가고있는 속에 철도운수부문에서도 년간계획수행단위들과 년간계획완수자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증송의 기적소리 높이 울려가려는 수송전사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는것은 무엇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주체63(1974)년 10월 70일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던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 및 정무원(당시)의 일군들과 도당책임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협의회에서 전당이 동원되여 철도운수사업을 도와줌으로써 수송혁명방침관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당면한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에서 철도운수사업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철도수송문제를 풀수 없습니다.

…도, 시, 군당위원회를 비롯하여 모든 당조직들이 철도수송문제를 푸는데 큰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나라의 철도운수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국이 수송전선을 힘있게 도와나섰다.

철도운수부문의 정치일군들과 지방당일군들은 화물렬차를 타고다니면서 그리고 역과 전동선, 항들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짐을 싣고부리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고 걸린 고리들을 함께 풀어나갔다.

당조직들이 움직이고 일군들과 당원들, 군중이 발동되니 도처에서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일어났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철도수송전사들의 애국충정의 발현인 증송의 기적소리가 낮에도 밤에도 끝없이 울리였다. 이에 따라 수송의 긴장성은 풀리고 수송실적은 날을 따라 올라갔다. 철도운수부문앞에 나선 수송과제를 어김없이 완수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보였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도수송사업을 전당적, 전군중적으로 도와줄데 대하여 주신 교시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랑찬 성과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달성된 성과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수송사업을 계속 끊임없는 혁신에로 이끌어주시였다.

70일전투가 승리적으로 끝나가고있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통체신위원회(당시)의 책임일군들을 또다시 부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시여 수령님께서 철도수송이 올라간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라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 만족을 드리는데서 최대의 행복과 기쁨을 느끼시며 더없는 긍지와 보람을 찾으시는 그이의 숭고한 충정심에 일군들은 감동을 금할수가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이 자리를 잡고 앉자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철도화물수송량을 70일전투전에 비하여 매일 수만t이나 더 늘인것은 한개 철도국을 거저 얻어낸것이나 같은것이라고 하시며 수송량이 올라간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에서 전투를 직접 지휘하면서 당조직이 대중을 발동하고 특히 철도운수사업을 전당적으로 지원해주도록 하였기때문이라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인을 옳게 찾았다고 하시면서 전당이 동원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풀린다라고 힘있는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이날 철도운수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강령적인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교시를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하루에만 하여도 집중화물역은 어디에 어떻게 전실하고 사상전은 어떻게 벌려야 하는가 하는데 이르기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철도수송문제를 풀기 위하여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이고도 세련된 령도의 손길에 의하여 철도운수부문에서는 70일전투를 통하여 우리 나라 철도운수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못 잊을 그날의 사연을 전하며 증송의 기적소리는 오늘도 높이 울리고있다.

우리 당력사의 첫 70일전투의 나날 철도운수부문에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 높은 증송성과로 빛내이려는 불같은 충정의 마음이 미더운 수송전사들의 심장마다에서 세차게 높뛰고있기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울리는 증송의 기적소리는 그리도 높고 자랑스러운것이리라.

본사기자 김 준 혁

가물과의 투쟁은 시간을 다투는 긴장한 전투이다, 련속돌격전을 들이대자

평안남도안의 가물피해막이전투장에서

일군들이 앞장에 섰다

당의 전투적호소에 화답하여 평안남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가물과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련일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평안남도당위원회 일군들은 들끓는 협동벌들에 나가 기수, 전위투사가 되여 광범한 대중을 가물과의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가물과의 전투를 힘있게 벌림에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가물피해를 심하게 받고있는 평원군과 숙천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 일군들을 파견하여 군민협동작전으로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해나가고있다.

평성관개기계공장에 나가 소형양수기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짧은 기간에 1 000대의 소형양수기를 생산할 대담한 작전을 세웠다. 종전같으면 엄두도 낼수 없는 수자였다. 하지만 책임일군은 순천화학련합기업소,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가물피해막이전투는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이라는 관점에서 각종 부분품과 내화벽돌, 규소철, 선철 등을 무조건 생산보장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계획된 소형양수기 전량을 생산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물부족으로 농사에서 큰 지장을 받고있는 평원군 문흥협동농장과 량교협동농장에 달려나간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양수기와 진동기, 철관, 세멘트, 주철관 등 설비와 건설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그리고 도급기관 일군들과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협동작전을 벌려 많은 토방을 처리하고 관개수로공사를 하여 물원천을 확보함으로써 해마다 가물피해를 받던 포전들에 물을 대줄수 있게 하였다.

증산군에 나간 도당위원회일군들은 군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락생협동농장 1단양수장에서 무본천까지의 물길구간에서 많은 토방을 처리하여 물통과능력을 종전보다 2배이상으로 높여 포전들에 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북창군에 파견된 일군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는 방법으로 룡산협동농장에 양수기와 주철관을 해결해주어 관개시설을 복구함으로써 많은 면적의 강냉이밭에서 가물피해를 막을수 있게 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개천시와 숙천군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현장에 나가 포전들을 타고앉아 대중의 앞장에서 이신작칙하면서 물주기를 진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과 개천시당위원회 일군들은 가물피해가 심한 보부협동농장에 나가 우물을 새로 파고 굴포를 더 건설하며 강우기와 분수식관수로 가물피해를 받는 포전들에 물을 대기 위한 조직사업을 통이 크게 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양수기와 강우기가동에 필요한 부속품과 자재를 해결해주어 수십정보의 가물피해면적에 교량관수를 할수 있게 하였다.

숙천군에 나간 도당위원회일군들은 가물과의 전투를 힘있게 벌림에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군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총동원시키고있다. 이들은 검산농장에 나가 가물피해막이전투정형을 료해하는 과정에 양수설비와 자재가 부족하다는것을 알고 군안의 일군들과 합심하여 양수기 12대와 1 000m의 관, 연유 등을 보장해주어 물주기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였다.

평성시에 나간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시당위원회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청옥협동농장의 저수지능력확장공사를 통이 크게 해제끼였다. 일군들과 인민군군인들은 군민협동작전으로 굴착기를 비롯한 대형륜전기재들을 동원하여 많은 토방을 처리하고 저수능력을 종전보다 1.5배이상으로 늘임으로써 부족되는 물문제를 풀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여놓았다.

도당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은 가물피해를 받은 포전들에 대한 농업기술적대책을 세워 안전한 수확을 내기 위한 조직사업도 잘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도안의 협동벌들에서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지난 5일동안에만도 도적으로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카두녀성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인민군군인들과의 협동작전으로 가물피해를 심하게 받고있던 논과 밭에서 농작물의 생육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시, 군들에서 물원천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우물과 굴포, 뚝짱, 보막이, 물주머니를 새로 건설하거나 복구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물보장조건이 어려운 문덕군 음협동농장, 상북동협동농장, 평원군 석교협동농장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고 물원천을 새로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의 기수, 전위투사가 되여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돌격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도당위원회일군들의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에 의하여 온 도가 부글부글 끓어번지고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증산군에서

력량을 기동성있게 집중배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입니다.》

증산군안의 협동벌이 가물피해막이전투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가물과의 전투는 단순한 자연과의 투쟁이 아니라 당정책옹위전,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이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런 관점에서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에 진입하였다.

기관, 기업소, 공장들은 물론 카두인민반들에서도 밭을 뜨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떨쳐나서야 한다는 판짐을 가지고 포전으로 달려나가 구슬땀을 바치고있다.

앙양된 대중의 열의에 맞게 군의 책임일군들은 마음의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이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다.

특히 이들은 지대적특성과 물대기조건 등에 따르는 각 협동농장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로력과 기재들을 가물피해막이전투장들에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전개할수 있게 하였다.

군일군들의 면밀한 작전에 따라 기관, 기업소, 공장들의 물전기재들이 물을 가득 싣고 물보장조건이 제일 불리한 지역들로 신속히 기동하였다.

운전사들도 맡겨진 물운반전투과제를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에서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이암, 석다협동농장들에서는 매일 많은 면적에 대한 물주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금송협동농장에는 군적인 관심속에 여러대의 양수설비들이 새로 신속히 전개되였다. 결과 지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있는 농장의 제1, 6작업반 포전들에도 생명수가 중단없이 흘러들고있다.

재정성에서는 석다협동농장에 시간당 10여정보의 논을 푹 적실수 있는 여러대의 이동식양수설비들을 보내주어 가물과의 투쟁에 떨쳐나선 이곳 농장원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군에서는 물운반거리가 가까운 농장들에 물주기로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땅속의 물을 다 퍼올려서라도 포전을 적실 각오를 안고 광제협동농장으로 달려나간 군안의 카두녀맹원들이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반적포전에서 논벼들의 초기생육은 안전하게 담보되고있다.

모든 비생산로력들을 총동원하고있는 각 농장들에서도 자강력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눈에 띄는 물주기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전투성과가 오를수록 군의 책임일군들은 일덧비료주기와 병충해막이, 김매기 등의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농작물들의 생육보장에 자그마한 지장도 없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메속깊이 새기고 가물과의 투쟁에 떨쳐나 전과령역을 넓혀나가고있는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더 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하여 농장원들과 한전호에 서서 련속공격,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물원천확보에 선차적힘을

안주시에서

가물피해막이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안주시에서 물원천확보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미 가물과의 전투에 진입하여 60여개의 우물과 40여개의 굴포, 20개소의 보막이공사를 끝낸 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그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지난 이틀동안에만도 25개의 우물과 15개의 굴포, 12개소의 보막이, 2개의 저류지들에 대한 바닥파기공사를 끝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긴급협의회를 열고 시급기관 책임일군들을 농장들에 내려보내여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면적들을 극종별로 조사장악하게 하였다. 이 자료에 기초하여 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와 동들에 대한 포전분담사업을 조직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시당책임일군을 비롯한 시당위원회와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수십명의 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상서협동농장의 작업반, 분조들에 나가 물원천을 조사하고 농장원들과 함께 밤을 밝히며 우물과 굴포를 파고 보막이를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상서천에 대형삽차를 들이밀어 보막이공사를 단 하루동안에 끝냄으로써 수백㎥의 물을 더 확보할수 있게 하였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고무된 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하천들에 나가 바닥파기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많은 량의 물을 확보해놓았다.

물확보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능력이 큰 2개의 저류지들에서 바닥파기공사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으며 포전들에 우물과 굴포들이 경쟁적으로 생겨나 많은 물이 확보되였다.

시에서는 많은 량의 물이 확보된데 맞게 가물피해를 받을수 있는 면적들에 이동식양수기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물을 보장하기 위한 전투를 짜고들었다.

일군들이 농장, 작업반들에 나가 농장원들과 함께 양수기들과 원동기들을 새로 건설한 우물과 굴포들에 기동적으로 설치하고 물주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양수장들에 시급기관 일군들을 배치하고 제기되는 부속품과 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하면서 양수공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공급된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양수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시에서는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관심을 돌렸다.

특히 포기마다에 깊은층물주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데 큰 힘을 넣었다. 일군들은 강서분무기공장에 나가 400대의 분무기와 500여대의 물주는 기구를 마련하고 진거름을 물에 풀어 깊은층물주기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결과 가물을 타던 많은 면적의 논밭들에서 농작물들의 생육이 왕성해지기 시작하였다.

가물피해막이를 당정책옹위전, 사회주의조국존엄사수전으로 간주하고있는 이들은 해일당장 비가 온다 해도 내밀어야 할 전투라는 확고한 관점밑에 보다 큰 성과를 안아오기 위해 한마음한뜻이 되여 힘차게 달리고있다.

▷ 우리 군대가 제일 ◁

뜨겁게 오고가는 혈연의 정

평원군 문흥협동농장 물길공사에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번영목소속부대 군인들이 현장에 도착한지 하루가 지난 저녁이였다.

철야전투를 벌리고있는 물길공사장에 일군들이 많은 원호물자를 가지고 나타났다.

행군길에 몹시 피로하였지만 도착한 첫날부터 밤에도 횃불을 켜들고 물속에서 굴착전투를 벌리는 군인들의 투쟁에 감동되여 이렇게 달려왔던것이다.

그런데 일은 어떻게 번져졌던가. 군인들은 그 원호물자를 즉시 중등학원원아들에게 보내주었던것이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전투장으로 떠나올 때에 주둔지역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부담도 주면 안된다고 하면서 땔감까지 마련해가지고 나왔었다.

바로 이런 군인들이기에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속에는 그들에게 더욱더 뜨거운 지성을 바치고싶은 충동이 불같이 솟구쳐올랐다.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현장에서 군인들과 함께 일하는 조건을 리용하여 그들에게 혈육의 정을 보다 뜨겁게 안겨주기 위한 여러가지 방도들을 찾아냈다. 하지만 한가지도 실현시킬수 없었다.

군인들의 대답은 하나같았다.

《우리에게는 문흥땅의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됩니다.》

군인들은 오히려 농장원들을 더욱 극성스레 도와나섰다. 련이은 철야전투로 농장원들이 힘들어 할 때에는 그들속에 들어가 현장방송도 해주고 군민련환공연도 진행하면서 사기를 높여주었다.

이렇게 물길건설전투장에서는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정이 차넘치는 속에 성과가 오르고있다.

물차가 된 화물자동차

문덕군 음협동농장 제2작업반으로 군인들이 물을 싣고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였다. 농장일군들과 작업반원들은 기쁨에 넘쳐 도로에 달려나갔다.

그런데 그들앞에 나타난것은 적재함에 물통도 싣지 않은 화물자동차행렬이였다.

혹시 자기들이 잘못 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자동차들에 다가간 농장원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화물자동차들에는 생명수가 가득 실려있는것이 아닌가.

순간 그들속에서는 《우리 군대가 제일이다!》라는 함성이 터져올랐다.

후에 안 일이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조선인민군 리학청소속부대 지휘관들은 즉시 농장으로 떠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 부대에는 물을 실을수 있는 물전기재들이 군사임무수행을 위해 현지에 나가다보니 단 한대도 없었다. 있다는것은 오직 화물자동차들뿐이였다.

그렇다고 하여 그 차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릴수는 없었다. 명령을 받은 전사는 한몸이 그대로 생명수가 되여서라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것이 부대지휘관들의 확고부동한 결심이였다.

곧 화물자동차적재함들에 비닐박막을 리용하여 주머니를 만들고 물을 싣기 위한 전투가 진행되였다. 이렇게 되여 모든 화물자동차들이 적재함에 물을 실어나를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물사령지휘체계가 더욱 은이 나게

문덕군에서

문덕군일군들이 가물과의 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받아안고 조직사업을 더욱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특히 물사령지휘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 군안의 전반적인 포전들에 물을 원만히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군책임일군들은 화를 북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킬 비상한 각오로 떨쳐나섰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물사령지휘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데서 찾고 적극적으로 내밀었다.

군에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모든 포전들에 대한 물보장을 통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짜고들었다.

책임일군들은 정남관개물길 7개 지선들에 일군들을 파견하고 농장, 작업반, 분조들에까지 나가 가물타는 면적들을 수시로 장악하면서 지선별, 포전별에 따라 필요한 물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또한 농장, 작업반, 분조들에서 물이 긴장한데 맞게 물사령지휘체계가 은을 내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총화평가사업도 제때에 하여 대중의 열의를 높여주고있다.

군에서는 물길의 물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한 작전을 기동적으로 하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고있다.

최근에 기온이 급작스레 오르면서 정남관개물길에서 뻗어나간 지선물길들에 많은 물들이 자라 물통과능력이 40%나 떨어지게 되였다.

일군들은 물풀베기를 3일내에 진행하여 물흐름속도를 높이기 위한 즉시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었다.

농장들에서는 로력이 긴장한 속에서 인원을 뚝 떼여 물풀베기를 진행하게 하였다.

일군들은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한방울의 물도 아낄줄 아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하면서 물절약형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농장원들은 간단물대기, 중간물말리기 등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군에서는 물사령지휘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운데 맞게 양수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강하게 내밀고있다. 일군들이 해당 단위와의 련계밑에 모든 양수장들에 우선적으로 전기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돌리고있다.

농장들에서는 양수공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짜고들면서 예비부속품을 미리 마련해놓고 그들이 양수일지를 정확히 리용하면서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게 함으로써 양수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해가고있다.

지금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기어이 승리자가 될 불타는 열의밑에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과학적인 영농방법도입을 동시에 내밀어

숙천군에서

숙천군에서 가물피해막이에 과학적인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군에서는 가물을 타는 면적들을 필지별, 포전별로 수시로 장악하고 농작물의 생육조건에 맞게 그 극복방도를 찾으면서 필요한 대책들을 기동적으로 세워나가고있다.

논벼의 영양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일군들은 기술자들과의 련계밑에 가물로 논벼들에 질소영양성분이 부족하다는것을 알고 그것을 보충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농장들에 내려가 가무는 때에 농작물의 질소흡착능력이 낮아지는 현상을 농업근로자들에게 원리적으로 인식시키고 그 극복방도를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군안의 농업근로자들은 질소흡착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카리티탄비료와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뇨소비료에 섞어주면서 성실한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그리하여 생육상태가 좋지 못하던 수십정보의 논에서 5일만에 논벼의 잎색이 달라지고 아지치기가 더욱 왕성하게 진행되였다.

군에서는 가물이 지속되는데 맞게 비료주기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결과 가물을 타는 포전들에서 습도를 보장하면서도 비료를 흡착시키고 그 효과를 더욱 높일수 있었다.

군에서는 가물을 많이 타는 강냉이밭들에 대한 기술적대책을 세우는데도 큰 힘을 넣고있다. 일군들은 가물철에 하늘을 쳐다볼것이 아니라 땅속을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강냉이뿌리의 활성을 높여주기 위한데 관심을 돌리였다.

특히 진거름영양떡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을 군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강하게 내밀고있다. 농장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진거름을 물에 희석시켜 가물을 심하게 탄 강냉이포기들에 주기 위한 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 실적을 올리고있다.

결과 강냉이뿌리들이 땅속깊이 들어가 일마르는 현상이 없어지게 되였으며 토양염도가 올라가지 않게 되였다.

군에서는 가물타는 강냉이밭들의 물증발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김매기와 잎자르기를 강하게 내밀었다.

농업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앞그루감자수확을 끝내고 강냉이밭김매기와 잎자르기에 전심전력하였다.

그리하여 가물피해를 막으면서도 정보당 소출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게 되였다.

당증앙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할 불같은 충정의 마음을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에 의해 가물피해막이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자연과의 투쟁에서 기어이 승리할 신심에 넘쳐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실화

교정과 칠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더욱 높아갈수록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은 더욱 승승장구할것입니다.》

숙천군 은덕소학교에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는 처음이다. 오늘만 해도 방금 도착한 평원군의 교장들이 벌써 세번째 손님들이다. 평안북도에서도 온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못한 모양이다.

《교장선생님, 축하합니다. 자체의 힘으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선생님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왔던김에 교장선생님의 경험담도 듣고싶습니다.》…

교장 송광운의 손을 맨 먼저 덥석 잡아쥐며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이미전부터 잘 알고있던 평원군의 어느 한 학교 교장이였다.

참관자들의 발걸음은 의례히 교사뒤쪽에 자리잡은 교재원으로 향하였다.

《아— 이건 정말 과일바다구만요. …》

《저길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비림대를 세워주었는데도 가지가 땅에 막 닿는군요.》

지마다 탄성을 울렸다. 눈앞의 현실이 그러지 않고서는 못 견딜 정도로 그들을 흥분시켰던것이다.

그 모습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송광운은 교정의 아름다운 오늘을 위해 바쳐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 *

몇년전 어느날 은덕소학교 교장으로 임명받은 송광운의 안색은 어딘가 모르게 어두웠다.

사실 그는 소학교 부교장으로 일해오면서도 졸업생들을 인민군대와 대학, 사회에 보내는 중학교에서 한번 일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늘 품고있었다.

해마다 교정을 떠나는 제자들을 바래워주고 또 그들의 편지도 받아보며 느끼는 긍지와 함께 공세우고 돌아온 제자를 얼싸안는 기쁨도 맛보고싶은것이 그의 솔직한 심정이였다.

무거운 걸음으로 교정에 들어서는데 학생들 어렷이 그에게 달려와 꾸벅 인사를 하였다.

《교장선생님, 안녕하십니까.》

《…》

겨잠내기로 목청을 높이는 애들의 모습이 왜서인지 그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룰수 없었다. 부교장사업을 하면서 별로 이렇다 하게 해놓은 일도 없는 자기가 교장이 되었다고 그처럼 정담아 인사하던 애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어둠속에서 생생하게 떠오르며 가슴을 허비었다. 그와 함께 학교의 모습도 떠올랐다. 손질한지 오랜 면면치 못한 울타리와 축보판, 풀들이 지 않아 장난꾸러기들의 놀이터처럼 변한 교재원, 색바랜 교사의 외부…

그런 속에서도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채 제딴에 더 보람찬 일을 해보겠다고 한것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쓰렸다.

얼마후 그는 통이 큰 일판을 벌려놓았다. 울타리개건, 정문공사, 옹벽쌓기, 축보판과 상식소개판을 다시 세우는것 등 교정을 단번에 일신시키자는것이였다. 때는 2009년 봄이였다.

온 나라가 들끓던 150일전투와 더불어 교사주변은 순식간에 하나의 큰 공사장으로 변하였다. 한쪽에서는 불도젤과 대형삼차가 와릉거리고 다른쪽에서는 렌속 들이닥치는 자동차들로 하여 먹돌이 산더미처럼 쌓이는가 하면 교사뒤쪽에서는 담장쌓기가 진행되였다. 군직으로 손꼽히는 미장공들과 기능공들도 달려왔다. 주인된 도리에 보고만 있을수 없어 교원들도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는 작업장에 뛰여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교사앞에 크지 않은 시설을 하나 일떠세우기 위한 기초파기가 진행될 때였다. 1m정도만 파면 될줄 알았는데 교장은 작업그만구렁을 내리지 않았다. 오래전에 성토한 구간이 기때문에 생땅이 나올 때까지 파내려가야 한다는것이였다.

작업이 끝난 후 3m는 실히 될것 같은 기초구뎅이바닥을 내려다보니 막 아찔할 정도였다. 그들이 파낸 흙무지들곁에서는 오후반수업을 마친 어린 학생들이 책가방을 멘채로 따라잡기내기를 하고있었다. 이때였다.

《이제 이 손에 어떻게 백묵을 쥐나? 집일은 또 어떻게…》

한 녀교원이 물집이 터지다 못해 검스레한 피자국까지 어기저기 나있는 손을 보며 울먹울먹해서 말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분과장이 슬그머니 교장에게로 다가왔다.

《교장선생님, 저 철부지들이 후날 이 모든걸 알아주기나 할가요?》

교장은 그에게 대답을 줄수 없었다. 그래도 해야지 하고 말해주고싶었으나 그가 제 마음속을 날날이 들여다보고 그러는것 같아 차마 입밖에 끼낼수가 없었다. 자신에게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던것이다. 울상이 된 녀교원도 그래서 더 서글퍼할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의 마음도 어쩐지 좀 쓸쓸해졌다.

그로부터 한달이 흘러간 뒤 학교에서는 6.6절을 맞으며 운동회를 열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학교에 온 학부형들이 놀라운 전변을 두고 이구동성으로 찬탄을 터뜨리자 교원들의 기분은 무등 달아올랐다.

마치 제 혼자 다 한것처럼 학부형들에게 손세까지 써가며 이야기해주는가 하면 그들에게 변모된 교정의 여기저기를 보여주며 흐뭇해하기도 하였다. 그들중에는 건설물계를 잘 몰랐던탓에 오작시공을 하여 밤늦도록 되치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처녀 교원들도 있었다.

그처럼 힘겨웠던 나날이 언제 있어보았던듯 희열에 넘쳐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교장의 마음도 즐거웠다. 한달동안 쌓인 피로가 순간에 풀리는것 같았던것이다.

그럴수록 그의 머리속에는 저 철부지들이 후날 알아주기나 하겠는가고 토로하던 분과장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자기자신의 심정그대로인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채 그는 과일나무모를 구하러 먼길을 떠났다.

다음해 봄 학교에서는 600여그루의 과일나무를 심었다. 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던 석비레땅이였지만 거름을 듬뿍 내고 애지중지 심고 가꾸었더니 3년후부터는 제법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기 시작했다. 봄이면 교정에 과일꽃향기가 넘쳐났고 여름과 가을이면 열매풍경이 펼쳐졌다. 땀흘린 보람이런가 과일따는 기쁨 또한 이를데 없었다.

먹던중 제일 달다며 웃음꽃을 피우는 교원들과 학생들을 만족하게 바라보며 이런 멋에 오늘까지 힘들게 일해왔던가 하고 생각하던 교장의 머리속에는 문득 어느 한 학생이 글짓기시간에 쓴 《우리 나라》라는 제목의 글이 떠올랐다.

…우리 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복숭아, 추리, 살구, 감, 앵두, 사과나무가 있는 우리 학교도 참 좋은 학교입니다. …저는 앞으로 커서 우리 나라를 우리 학교처럼 과일나무동산으로 만들겠습니다.

갓 글을 배우기 시작한 소학교학생의 작문은 소박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실이 담겨져있었다. 학교의 모습이자 조국의 모습이며 사회주의의 모습이라는것이였다.

한글자한글자 음미해보던 교장은 무릎을 쳤다. 자기가 그토록 찾던 답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것이다.

그날 저녁 그는 교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 오늘은 동무들에게 솔직히 털어놓겠습니다. 실은 나도 소학교교육자의 긍지와 보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에야 깨달았습니다. …》

어머니가 첫걸음마를 떼여준 정든 고향집뜨락이 태어나 처음으로 눈에 비낀 조국의 모습이듯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제의 혜택속에 우리 말과 글을 익혀가는 소학교의 교정은 학생들이 처음으로 안아보는 사회주의의 모습이다, 활짝 열려진 배움의 꽃대문이 티없이 맑은 눈동자에 사회주의제도의 첫 모습으로 비껴들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그애들이 후날 우리를 기억하겠는지는 몰라도 이 소학교만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이처럼 기억속에 영원할 우리 사회주의의 첫 표상을 아름답게 새겨주는데 소학교교육자들에게만 고유한 긍지와 보람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고 하는 그의 이야기는 교원들의 심금을 울렸다. 생각해볼수록 뜻이 깊은 말이였던것이다.

그때부터 학교의 전변속도는 더더욱 빨라져갔다.

* *

《이제는 이 300평이 좀 넘는 작은 땅떼기에서 한해에 과일과 버섯을 10여나마 거두어들이고있습니다. 다기능화된 교실꾸리기를 비롯한 교육조건개선사업에서도 큰 진전을 이룩했구요. 하지만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건 이 교정을 하나의 큰 칠판으로 만들겠다고 떨쳐나선 우리 교원들의 모습입니다.》

《예? 교정을 칠판으로요?…》

영문을 몰라하는 참관자들에게 교장은 말했다.

《나어린 소학교학생들이 사회주의라는 글자를 교실의 칠판을 통해 배운다면 사회주의무릉도원에 대한 그들의 리해는 이 작은 교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소학교의 작은 교정은 그애들에게 우리 나라의 참모습을 처음으로 알게 해주는 큰 칠판인셈이지요. 다른 누구도 가져볼수 없는 이런 남다른 자랑을 안고있기에 이렇게 우리 교원들은 교정을 알뜰살뜰 꾸려나간답니다.》

교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그러나 참관자들은 먼 후날에도 후대들의 기억속에 사회주의의 첫 표상으로 영원한 소학교의 교정을 아름답게 꾸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뿌리마냥 자신을 바쳐가고있는 이곳 교육자들의 교육자적 량심과 헌신을 가슴뜨겁게 안아볼수 있었다. 더불어 자신들도 그들과 같은 인생관을 지니고 교육사업에 투신하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며 학교를 떠났다.

본사기자 한 경 철

함경남도에서

탄부들을 위한 수백세대의 살림집 건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높이 받들고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 탄부들을 위한 600세대의 살림집을 훌륭하게 일떠세웠다.

수동구에 다층으로 일떠선 탄부살림집은 2칸의 방과 부엌, 베란다와 창고를 비롯하여 모든것이 탄부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설계되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탄부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것은 수령님의 유훈이며 우리 당의 정책적요구입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인 석탄전선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탄부들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에 살림집건설을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강력한 현장지휘부를 조직하였으며 자재보장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또한 현지에서 시, 군책임일군들의 협의회를 조직하여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수동구의 여러곳에 수백세대의 살림집들을 건설하는데 맞게 지구별로 분지휘부를 내오고 일정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돌격대원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리였다.

박길회, 분인수동무를 비롯한 현장지휘부일군들은 공사일정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모든 전투장들에서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자재보장을 앞세웠다.

또한 대대들사이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공사장마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세차게 일어나게 하였다.

지난해 8월 착공의 첫삽을 박은 시, 군돌격대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면서 10여일동안에 기초굴착 및 기초콩크리트치기를 결속하였다. 돌격대원들은 올해 3월에 들어와 골조공사를 끝내고 일제히 내부공사에 진입하였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원년책임, 만년보증의 원칙에서 건설물의 질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깨끗한 량심을 바쳐나갔다.

정평군, 부전군대대가 맡은 살림집건설장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났다.

수동구대대의 돌격대원들도 자기 고장을 제손으로 꾸려간다는 자각을 안고 힘찬 투쟁을 벌려 골조공사와 내부공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갔다.

돌격대원들은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아래 여러 탄광들에서도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다그쳤다.

지금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지대정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면서 탄부들의 새집들이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있다.

특파기자 김 경 철

탄광이 자랑하는 선구자집단

령대탄광 3갱 채탄3중대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적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우선시하고 앞선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며 집단주의적경쟁열풍속에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여야 합니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운 천리마시대에도 그러했지만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본태와 대륙모는 만리마시대에도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교대가 교대를 돕고 앞선 단위가 뒤떨어진 단위를 이끌면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선구자들속에는 령대탄광 3갱 채탄3중대원들도 있다. 어디서나 만나볼수 있는 수수한 차림새의 탄부들이지만 얼마나 돋보이는 위훈의 창조자들인가.

총칭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가 진행된 지난해에도 년간석탄생산계획을 탄광적으로 남면저 완수한 채탄3중대원들은 올해에 들어와서도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두달이상이나 앞당겨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4월 어느날이였다.

그날도 중대원들과 함께 막장에 들어가 하루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갱을 나서던 중대장 안성철동무는 중대멸사회주의경쟁도표판앞에서 그만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제 며칠후면 중대가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게 되는것으로 하여 중대원들모두가 기쁨에 넘쳐있었지만 안성철동무의 얼굴은 밝지 못했다. 뒤떨어진 채탄2중대의 석탄생산실적이 마음에 걸렸던것이다.

(지난 천리마시대에도 앞선 단위는 뒤떨어진 단위를 이끌어주면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지 않았던가.)

그는 채탄2중대의 석탄생산실적이 높지 못한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것만 같았다. 사실 채탄2중대원들은 대부분이 기능이 낮은것으로 하여 생산실적이 높지 못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였다.

하지만 안성철동무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중대의 기둥소대를 채탄2중대의 제일 뒤떨어진 소대와 바꿀것을 결심하고 갱일군들을 찾아갔다.

《역시 최전연초소의 옛 사판장이 다르긴 달라.》

그 누구보다도 기뻐한것은 어제날의 채탄공이였던 갱장 원치정동무였다. 그러나 잠시후 갱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만일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격이 될수 있었다.

채탄3중대로 말하면 탄광은 물론 련합기업소적으로도 일 잘하기로 소문난 단위였다.

《우리 중대만이 아니라 온 갱이 만리마를 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 중대보다도 갱의 전투실적에 마음을 쓰는 안성철동무앞에서 갱일군들은 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리진철동무를 비롯한 소대원들이 채탄3중대의 석탄생산을 걱정하며 중대를 떠나지 않으려고 할 때에도 안성철동무는 다같이 만리마를 타고 힘차게 내달려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그들의 등을 떠밀었다. 그후 채탄2중대의 실적은 물론 갱의 전반적인 실적이 높아진것은 두말할것 없었다.

5월에 들어서면서 채탄3중대는 기둥소대가 빠진것으로 하여 어지간히 애를 먹었다. 게다가 중대의 막장조건도 불리해졌다.

그러던 어느날 석탄생산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던 안성철동무는 당세포위원장 조명기동무와 마주앉았다.

《내 생각에는 막장교대를 할 때 다음교대가 쓸 동발나무를 미리 날라다주면 그만큼 실적이 더 오를것 같습니다.》

순간 조명기동무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소대들에서는 채탄과정에 동발나무를 운반하느라 적지 않은 시간과 로력을 소비하여야 했다. 교대를 인계한 후 다음교대가 쓸 동발나무를 운반해준다면 그만큼 교대당 석탄생산능률이 오를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였다.

이렇게 되여 중대는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구호속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3.4분기 석탄생산계획도 훨씬 앞당겨 끝내게 되였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이 구호는 오늘 채탄3중대원들에게 있어서 실천의 구호로, 투쟁의 좌우명으로 되고있다.

자기 교대, 자기 중대만이 아니라 늘 갱의 실적을 생각하는 그들이기에 채탄3중대원들은 채탄1중대의 막장에서 불주머니가 터져 석탄생산이 일시 중지되였을 때에도 성심성의로 도와주어 불과 몇시간만에 막장을 복구하고 생산에 들어갈수 있게 해주었고 작업도중 뜻밖에 바위구간이 나타났을 때에는 온 중대가 전투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고 하면서 결사전을 벌려 48시간만에 다시 채탄작업을 진행하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뜻깊은 태양절경축행사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그길로 가정에서 많은 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막장으로 달려나와 중대원들을 고무해준 조명기동무며 교대가 끝나면 막장을 뜨지 않고 스스로 일감을 찾아하여 집단의 사랑을 받는 청년돌명원 박성철동무의 모습은 또 얼마나 미더운가.

오로지 석탄증산만을 생각하며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위훈의 창조자로 자랑떨치는 이런 참된 탄부들이 있어 석탄산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이 솟아오르는것이다.

본사기자 홍 성 철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 정히 받들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석이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그것이 비록 크지 않아도 귀중한것이며 언제나 아름다운것입니다.》

오늘의 만리마시대는 끝없이 태여나는 아름다운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로 하여 더욱 격조높다.

그 주인공들속에는 당의 후대사랑의 뜻을 티없이 새�># 비약의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2중3대혁명붉은기 평양전기기구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체육강국건설에 이바지할 일대안고 질좋은 체육기자재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있다. —평양체육기자재공장에서— 본사기자 리 충 성 찍음

평양전기기구공장은 종업원수로 보나 부지면적으로 보나 별로 크지 않은 단위이다. 소문없던 이 공장이 최근에 불리보게 변모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잘 꾸려진 내부와 외부, 집단에 차넘치는 랑만과 화목, 놀랄만한 생산성과, 종업원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문화수준…

몇해 안되는 짧은 기간에 자랑많은 공장으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공장으로 비약하게 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작아도 큰 공장!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나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되여 이렇게 불리우게 된것인가. 제품의 량인가, 가지수인가, 아니면 생산설비의 대수인가.

취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되였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공장의 실태는 그리 시원치 못했다.

기본생산지표로는 정전축전기가 고작이였고 기술자라고는 단 한명뿐이였다. 그러다나니 생산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저 그저 생산계획이나 맞추며 유지해가는 상태였다.

한마디로 눈에 별로 띄지 않던 공장이였다. 그러던 공장에 갑자기 세찬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열풍이였다.

동기가 있었다. 정전축전기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던 대형권지기의 전동기속도조종문제가 갑자기 제기되였을 때였다.

여러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하지만 눈에 익고 손에 설다고 잘되지 않았다.

시일이 어지간히 흐르자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초조해졌다. 월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었던것이다. 공장에서는 할수없이 다른 단위의 손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런데 문제로 된것은 현장에 도착한 그 단위의 기술자들이 단 몇시간동안에 그 일을 떔시 있게 끝낸것이였다. 자기들의 일솜씨를 은근히 자랑하며 떠나는 그들을 보며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때 일을 돌이켜보며 공장의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그때처럼 수치감을 느끼기는 처음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각했습니다. 과학기술중시, 바로 여기에 생산활성화와 공장이 비약하는 길이 있다는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결심이 곧 실천으로 되는것은 아니였다. 이러한 때 당조직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급당위원회는 과학기술중시를 공장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로 보고 과학기술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여기서 먼저 내세운 문제가 인재육성이였다.

공장에서는 탐구심이 있고 재능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기술준비실을 꾸리였다.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보장은 전적으로 초급당위원회가 맡았다. 아직 경험과 실력이 부족한 자기들을 과학기술전선의 선구자들로 내세워주고 적극 떠밀어주는 당조직의 믿음은 그들의 열의를 더한층 불러일으켰다.

량성혁동무의 성장과정이 좋은 실례로 된다.

평양려객운수전문학교(당시)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공장에 배치된 그에게 있어서 현장은 모든것이 생소하였다. 하지만 당조직은 그가 맥을 놓고 주저앉을세라 힘과 믿음을 주었다.

그의 재능이 현실에서 큰 몫을 낼수 있도록 6개월간의 외국어강습에 이어 이름있는 과학연구기관에 가서 배우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주었다.

이 나날 그를 위해 바친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일군들의 헌신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하자면 끝이 없다. 그 믿음과 사랑은 그가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펼수 있게 한 디딤돌이 되였다.

여러 계기를 통하여 다방면적인 지식을 겸비한 그는 공장기술력량의 핵심으로 활약하였다. 저압제품에서의 력률을 자동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자동력률보상반을 연구개발하는데서 그는 자기의 재능과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했던것이다.

그만이 아니다. 공장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유능한 기술인재들이 련이어 성장했다.

초급당위원회는 이와 함께 온 공장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기 위한 분위기조성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렸다.

매 작업반들에 월마다 생산계획과 기술혁신과제를 함께 주는 정연한 사업체계가 세워진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기술혁신과제가 처음에는 단순한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는것이다. 누구나 조금만 마음을 쓰면 얼마든지 수행할수 있는 과제가 작업반원들에게 맡겨졌다.

목적은 종업원들속에 기술혁신이 결코 신비한것이 아니라는 신심과 배짱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결과 종업원들속에서 기술혁신은 누구나 관심하는 문제로 되였고 생산현장은 토론과 론쟁의 마당으로 변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이에 기초하여 기술혁신과제의 난도를 점차 높여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분무기제작, 공기압시험기구, 수지피복선사슬기…

신심을 가지고 떨쳐나선 종업원들에게는 그 어떤 어려운 과제도 문제로 되지 않았다.

초급당위원회는 기술혁신에서 앞장선 종업원들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영예등록장에 등록하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켰으며 총화와 평가사업도 잘하여 그들의 열의를 더한층 고조시켜나갔다.

온 공장은 말그대로 과학기술열풍의 도가니로 화하였다.

이 과정에 공장에는 인재가 나날이 늘어났다. 결과 오늘 공장은 각이한 전압단계에 효과적으로 쓰이는 30여가지의 정전축전기들과 용접봉, 비닐판, 연마석, 수지철그물망 등 다종다양의 여러가지 제품들을 짱짱 생산하는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다.

그른한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이 있어 이제는 무슨 일이나 두렵지 않다는것이 이곳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공장의 전투력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고 얼마전에는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은 과학기술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갈 때 그 어느 단위에서나 비약의 통장훈을 무를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한다.

본사기자 윤 명 철

미제의 침략성, 잔인성을 폭로하는 유물, 자료들 새로 전시

개성시계급교양관에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의 침략성과 잔인성을 보여주는 수십점의 증거물들과 자료들이 새로 전시되였다. 전시품들중에는 조선침략의 최후병인 미국선교사들이 개성땅에 기여들어 례배당과 녀학교 등을 세워놓고 숭미노예교총사상을 설교한 내용의 출판물자료들과 증서가 있다.

또한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인민의 자주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책동한 미제의 교활성을 보여주는 금속십자가 등도 있다.

해정리 지수지주변과 려현리에서 발굴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가 학살한 무고한 인민들의 머리칼들과 고무신들, 혁띠고리와 열쇠 그리고 각종 미국제 홍만과 단뵈 등은 60여년전 이 땅을 피로 물들인 살인마들의 죄행을 날날이 고발하고있다.

미제의 교활하고 악랄한 조선침략책동과 우리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야수들의 귀축같은 만행을 폭로하는 유물들과 자료들앞에서 참관자들은 증오와 분노의 치를 떨고있다.

그들은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광분하는 미제야말로 우리 인민과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원쑤이며 미제가 감히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선불질을 한다면 원쑤격멸의 성전에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침략자무리들을 씨도 없이 쓸어버리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멸적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대표단 에스빠냐를 방문하고 귀국

백용호 집행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이 에스빠냐를 방문하고 1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기와 년대를 이어 끝없이 울려퍼지는 위인칭송의 메아리

지난 수십년간 세계인민들속에서 집필발표된 도서와 글, 시작품들을 돌이켜보며

세월이 흘러도 우리 인민과 인류의 심장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그리움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그 그리움의 분출인양 세기와 년대를 이어 끝없이 울려퍼진 위인칭송의 메아리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이 시각 우리는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겨안고있다. 위대한 태양의 존함은 불멸할 업적과 더불어 지주시대의 해발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라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위인이시며 우리 민족의 어버이이실뿐아니라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령도자들이 있다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한민족의 어버이이실뿐아니라 인류의 태양으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를 받으시는 희세의 위인을 력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돌이켜보면 주체36(1947)년 4월 당시 국제직업련맹 서기장이 회견기 《김일성위원장 방문환담》을 내놓은 때로부터 지난 수십년간 세계의 많은 나라 인민들속에서는 《김일성전》, 《김일성략력》을 비롯하여 수많은 도서와 글, 시작품들이 집필발표되였다. 그중 절대다수는 수십개 어종으로 발행되였다.

이 경이적인 사실은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혁명의 대성인, 절세의 애국자, 인류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는 뚜렷한 증명이다.

이전 쏘련의 이름있는 작가이며 사회활동가였던 엔. 엠. 그리바쵸브가 쓴 서사시 《김일성장군》(1950년)은 외국의 벗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드린 서사시형식의 작품들중의 하나이다.

…

폭격에 무너지고 불탄 조선에
아직은 명절이 오지 않았건만
전쟁의 어려운 이 시각에도
령장은 벌써 승리를 내다
보셨다
나의 심장은 이렇게 말한다—

문학작품에는 창작가의 생활체험과 사상감정이 비낀다.

그리바쵸브가 위대한 수령님의 특출한 령도풍모를 강한 주정토로로 훌륭히 형상할수 있은것은 뜨겁고 강렬한 체험이 있었기때문이다.

1949년 어름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그는 평양과 원산, 함흥 등 어려곳을 돌아보면서 나라의 주인된 기쁨을 안고 새 사회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용감한 투쟁모습을 작품에 담고싶은 충동을 받게 되였다. 그의 이러한 충동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더욱 커졌다.

조국으로 돌아간 그리바쵸브는 조선에서 받은 인상을 여러가지 형식의 기사에 담아 발표하였다. 그러던 속에 해가 바뀌고 우리 나라에서는 전쟁의 포성이 울리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감행된 조선전쟁은 그의 가슴속에서 침략자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과 싸우는 조선인민에 대한 굳은 련대성의 감정을 더욱 세차게 분출시켰다.

언제인가 서사시의 창작경위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민의 수령이 령도하는 투쟁, 수령의 령도를 진정으로 받들고 싸우는 용감한 인민이 수행하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법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하고 조선인민의 수령 김일성동지를 형상하는 서사시를 빨리 써내야 하겠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조선전쟁이 일어난 후 이 서사시의 집필을 다그쳤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서사시 《김일성장군》은 쏘련의 《문학신문》에 발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풍모와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을 뜨겁게 노래한 서사시는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되였다.

작품은 혁명시인 조기천에 의해 번역되여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시기에 우리 나라의 여러 출판물들에 실리였다.

서사시 《김일성장군》!

정녕 그것은 한 시인의 심장의 토로만이 아닌 인류의 다함없는 격찬의 메아리였다.

캄보쟈왕국 국왕이였던 노로돔 시하누크는 회고기 《나와 김일성주석의 특별한 관계에 대하여》에서 《나는 가끔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체현하고 계시는 우정과 의리심, 온정에 대하여 새겨본다. 도대체 그것이 어디에 근원을 두고있기에 그토록 최상의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있는것일가. 아마도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느 정치가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그이의 천품적인 인덕에 근원을 두고있는것이 분명하다.》고 피력하였다.

세계의 많은 국가수반, 당수들은 물론 유명무명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진보적인민들이 《김일성, 그이는 인민의 태양》, 《동방에 높이 솟은 태양》, 《위대한 인간》, 《인민의 위대한 수령》, 《령도의 대가 김일성송가》, 《일흔번째의 봄》을 비롯한 도서와 글, 시작품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과 불멸의 업적, 그이를 모신 인류의 행운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만물에 빛을 주고 열을 주는 태양을 떠나서는 살수 없기에 인간은 누구나 태양을 숭상한다.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은 진정 우리 인민과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에도 위인흠모의 열기는 더욱 뜨겁게 차넘쳤고 태양찬가는 수령영생찬가로 온 누리에 메아리쳤다.

1994년 하반년에만도 각국의 저명한 자가, 예술인들, 각계층 인사들과 인민들속에서 《김일성영생행진곡》, 《아, 김일성주석》, 《빛나는 태양 김일성동지》를 비롯하여 근 200편의 시들이 창작발표된 사실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사상도 령도도 인품도 업적도 태양으로밖에는 달리 칭송할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집필하여 내놓은 도서 《태양은 꺼지지 않는다》에서 사람들이 태양의 수명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듯이 자주의 태양은 영원하다고 자기의 심장속진정을 터치였다.

진정 세기를 이어 5대륙의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진 위인칭송의 메아리들은 그 내용과 형식은 서로 달라도 위대한 수령님을 인류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전인류적 사상감정의 열화같은 분출인것이다.

이 땅에 변함없이 흐르는 태양의 력사와 더불어 위인칭송의 메아리는 오늘도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만민이 터치는 태양찬가는 절세위인의 인류사적업적을 길이 전하며 세세년년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조 향 미

태양조선의 천하제일경—《백두산8경》

백두산의 해돋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백두산8경》이 새로 명명되여 온 나라를 격동시키고있으며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고있다.

세상에는 나라와 민족마다 제 나름으로 자랑하는 명산, 성산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선군조선의 백두산처럼 웅장하고 천하절경으로 가득차있으며 절세위인들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혁명의 성산은 없다.

백두산이 있어 강대한 우리 조국의 찬란한 래일이 있다는 진리를 천추만대에 새겨주는 《백두산8경》은 정녕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더없는 자랑이고 천하제일경이다.

혁명의 성산을 심장에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승리만을 떨쳐온것처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백두산을 찾고찾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총직하게 받들어 이 땅우에 기어이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것이며 《백두산8경》은 강성번영하는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미래와 더불어 태양민족의 만년재부로 끝없이 빛을 뿌릴것이다.

* *

천하제일명산 백두산의 일만정치가운데서도 제일먼저 손꼽히는것은 백두산의 해돋이이다.

이른새벽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마루에 올라 감감한 어둠을 밀어내며 눈부시게 떠올라 온 누리를 붉게 물들이는 해돋이를 보는것은 참으로 장쾌함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라고 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은 주체혁명의 발원지이고 승리의 상징이며 영원한 등대입니다.》

예로부터 금강산의 비로봉에서 보는 동해의 해돋이를 절승이라고 일러왔다.

비로봉에서 동해의 해돋이를 볼 때 제일 빨리 시작되는 시간은 새벽 4시 33분이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마루에서 해돋이를 볼 때 제일 빨리 시작되는 시간은 새벽 4시 23분이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 제일먼저 시작되는 백두산의 해돋이는 그 장쾌함과 빛발의 찬란함에 있어서 어디에 비길수 없는 절정중의 절정이다.

아직은 일만산줄기들이 어둠에 잠겨있을 때 장엄한 태양이 지평선끝에서 바늘끝같은 빨간 점으로 생겨오르다가 그것이 점차 커지면서 천리수해를 물들이며 백두령봉을 서서히 비친다. 그러면 구름바다를 뚫고 지평선너머에서 태양이 솟아올라 조종의 산 백두산을 붉게 물들인다. 이때 성산의 계곡들과 바위들은 물론 해돋이를 보기 위해 백두산에 오른 사람들까지도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진다.

주체87(1998)년 10월 몸소 새벽어둠을 헤치시며 백두산에 오르시여 장쾌한 해돋이를 부감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뜻깊은 내용의 교시를 하시였다.

조선의 아침이 여기 백두산에서부터 밝아오듯이 주체혁명위업도 여기 백두산에서 시작되였다고, 나는 여기에 올라 저 붉게 타오르는 해돋이를 볼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해야겠다는 결심과 각오를 더 굳게 다지게 된다고.

최근년간 어려차례 혁명의 성산에 오르시면서 백두산의 해돋이에 대하여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이 가슴을 울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백두산해돋이를 사랑한다고, 백두산의 해돋이를 보니 혁명의 승리가 보이는것만 같다고, 혁명의 멀고 험한 길을 끝까지 가자면 우리의 신념은 백두산해돋이처럼 붉고 강렬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참으로 백두산의 해돋이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찬연한 빛발로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출위인상을 길이 전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영원한 태양의 빛발따라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힘차게 진군해갈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는 조선의 해돋이, 세계제일의 해돋이이다.

백두산현지종합탐험대 연구사 박사 최 근 섭

여름철에 잔디밭의 병충해를 미리막자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시와 농촌의 주민지구와 철길주변, 공원들에는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많이 심어 생명이 보이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7월초경에 점차 덥고 습한 아열대공기가 우리 나라쪽으로 올라오면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것이라고 한다.

이때 지속되는 높은 온도와 많은 량의 비로 하여 잔디밭의 온도와 습도도 급격히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기상상태는 왕꿰미풀이나 새김의털, 잔겨이삭과 같은 서늘한계절형잔디의 생육에는 불리하지만 여러가지 잔디병을 일으키는 전염성병원균들의 생장에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결국 잔디병이 쉽게 발생하고 순간에 퍼지면서 잔디가 죽고 잔디밭의 관상적가치가 심히 떨어지게 된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대기온도가 30℃이상, 습도가 85%이상인 상태가 10시간만 지속되여도 잔디밭에서는 여러가지 병이 발생한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잔디병을 미리막자면 재배기술적방법으로 잔디밭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여 병원균의 생장환경을 파괴시키는것과 함께 여러가지 농약으로 잔디밭의 병원균을 제때에 구제하는것이 중요하다.

우선 잔디깎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잔디밭의 습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며 병원균이 생장할수 있는 지피물층을 제때에 걷어내야 한다.

잔디밭에 물이 오래 고여있지 않도록 배수로를 잘 째주고 일정한 정도의 모래를 뿌려주는 방법으로 복토해주면 잔디병예방에 매우 좋다.

장마철에 들어서기 전에 잔디밭에 농약을 뿌려주어 이미 있던 병원균을 구제하면 잔디병에 의한 피해를 현저히 줄일수 있다.

살균제로는 아족시스트로빈, 만코제브 등을 쓸수 있다. 미생물농약 《청록1》호를 20일간격으로 3회 뿌려주어 잔디밭토양의 미생물상을 유용한 미생물상으로 바꾸어주면 잔디병예방에 좋다.

잔디병이 발생하면 화학살균제를 7일간격으로 2~3회 시비하여 병든 구역을 소독하고 병이 퍼지는것을 제때에 막아야 한다.

한가지 농약을 같은 장소에서 여러번 사용하는것보다 두가지이상의 농약을 엇바꾸어 사용하면 구제효과를 더 높일수 있다.

여름철에 일단 잔디병이 발생하면 회복기간이 매우 오래므로 화학농약과 함께 누렇게 병든 잔디잎을 인위적으로 풀색으로 만드는 잔디록색제를 뿌려주면 잔디병을 구제하면서도 잔디밭의 관상적가치를 정상수준으로 유지할수 있다.

무덥고 습한 여름철에 잔디밭에는 풍뎅이와 같은 해로운 곤충들이 날아다니면서 알을 낳는다.

한마리의 풍뎅이는 보통 100여개의 알을 낳는데 알에서 까나온 금뎅이는 장마철이 끝나면서부터 토양속에서 잔디뿌리를 갉아먹으면서 큰 피해를 준다.

이 시기에 해충에 의한 피해를 미리막기 위해서는 빛따름성이 강한 곤충의 생물학적특성을 리용하여 잔디밭에 유인등을 설치함으로써 알을 쓸기 전에 모조리 잡아없애야 한다.

금뎅이구제는 폭심 1000배희석액을 잔디밭 1㎡당 10L정도 조리로 뿌려주는 방법으로 할수 있으며 늦벌레는 1㎡당 알파시페르메트린 1000배희석액 0.8L를 골고루 뿌려주어 구제할수 있다.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는 여름철잔디밭의 병충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것이다.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 실장 리 정 훈

문명한 우리 생활과 금연운동

| 금연연구보급소를 찾아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에게 더 좋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것은 우리 당과 정부가 내세우고있는 일관한 현책입니다.》

오늘날 금연운동은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그것은 흡연이 인간의 건강을 엄중히 파괴할뿐아니라 사회경제발전과 문명사회건설에도 커다란 부정적영향을 주는 백해무익한것이기때문이다.

우리 생활속에서 금연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있는가.

얼마전 우리는 금연연구보급소를 찾았다.

소장 리연옥동무의 말에 의하면 금연연구보급소가 문을 연 때로부터 꼭 10년이 되여온다고 한다.

그 나날 금연연구보급소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늘 마음쓰는 당의 뜨거운 온정속에 수십명의 연구 및 보급력량과 금연제품생산공정, 각 도들에 분소들을 갖춘 금연활동의 거점으로 강화발전되여왔다.

《하루에 담배를 얼마나 피웁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있는 동안에도 여러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상담도 하고 금연제품에 대한 봉사도 받고있었다.

금연연구보급소에서는 이와 같이 상담과 봉사,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해독적영향과 후과에 대한 연구, 금연제품 및 건강식품개발, 선전물을 통한 교양사업 등을 진행하고있었다. 금연영양알, 주염차, 황경피너삼음료를 비롯하여 이곳에서 연구개발한 금연제품 및 건강식품들은 10여가지에 달했다.

특히 금연영양알과 주염차는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한다.

이곳에서 생산되고있는 금연영양알은 인체내에 축적되여있는 니코틴을 제거함으로써 금연뿐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한 순환기, 호흡기질병치료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것이 실천을 통하여 확증되였다. 특히 기침멎이, 가래삭임작용이 좋은것으로 하여 수요자들은 날로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사람들속에서 호평이 대단한 주염차도 니코틴중독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외적요인에 의한 중독을 해소시키는 작용이 뚜렷하며 심장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와 함께 암예방, 면역조절, 피로회복, 로화방지 등에도 쓰며 오래동안 앓아서 일하는 사무원들속에서 나타나는 비만증치료결과도 좋았다고 한다.

더욱 주목되는것은 이곳에서 생산되고있는 금연제품 및 건강식품들은 모두 우리 나라의 심산유곡에서 자라는 약재들을 주원료로 한 천연건강식품들이라는것이다.

제품들에 대한 소개를 마친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은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떠밀어주고 보다 문명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과정에 만나본 김수경, 조현옥, 원성희동무를 비롯한 전체 성원들도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이들의 불같은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더욱 문명해질 생활의 아름다운 화폭들을 그려보며 우리는 금연연구보급소를 나섰다.

본사기자

교육 및 오락프로그람 《조선의 태권도 1.0》 개발

최근 해당 단위 일군, 종업원들과 콤퓨터, 태권도전문가, 력사학자들사이의 적극적인 협동에 의하여 우리 식의 3차원 교육 및 오락프로그람 《조선의 태권도 1.0》이 개발되였다.

이 프로그람은 유희과정을 통하여 반만년을 헤아리는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에 대한 교육을 보다 실감있게 실천할수 있게 만든 프로그람이다.

교육 및 오락프로그람 《조선의 태권도 1.0》은 사용자가 여러개의 장으로 구성되여있고 단군조선시기의 환경으로 형상된 전장들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태권도의 다양한 기술동작들을 련마하게 한다.

이와 동시에 해당 시기의 력사적인 인물들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수 있도록 구성되여있다.

또한 사용자가 훈련장에서 해당 태권도동작들을 임의의 각도에서 재현하여보면서 동작수행의 기술적요구에 대하여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할수 있게 되여있다.

훈련장안에 태권도맞서기를 해볼수 있는 실습장까지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끌고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조선민족의 정통무도—태권도라는 종자에 기초하여 개발된 교육 및 오락프로그람 《조선의 태권도 1.0》은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고 태권도의 대중화를 적극 추동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국제예술체조경기규칙 몇가지

국제예술체조경기규칙은 4년을 주기로 하여 갱신된다.

아래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경기들에서 적용하는 예술체조경기규칙 몇가지를 소개한다.

예술체조경기에는 개인종목경기와 집체종목경기가 있다. 국제체조련맹의 규정에 따라 집체종목과 개인종목에서 리용하는 기재는 2년을 주기로 하여 다시 정한다.

개인종목은 보통 4개의 기재운동으로 이루어지며 매개 운동을 수행하는 시간은 1분 15초~1분 30초이다.

그리고 집체종목의 매개 세부종목운동을 수행하는 시간은 2분 15초~2분 30초이다.

집체종목경기때에는 한개의 세부종목에서만 가사가 있는 음악을 리용할수 있으며 개인종목경기때에는 두개의 세부종목에서만 리용할수 있다. 이전에는 개인종목에서 가사가 있는 음악을 한개의 세부종목에서만 리용하게 되여있었다.

이것이 바로 갱신된 내용이다.

성인급선수들의 경기점수는 최고 20점으로서 10점의 난도점수와 10점의 수행점수로 평가한다. 청소년급선수들의 경기점수는 최고 18점으로서 8점의 난도점수와 10점의 수행점수로 평가한다.

집체종목에 참가하는 매 단체선수들이 리용하는 기재는 무게, 치수, 형태가 같아야 하며 색갈만은 다를수 있다.

규정과 어긋나는 기재를 리용했을 때에는 0.5점을 삭감한다.

선수들이 입는 경기복의 장식은 안전상위험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예술체조협회 서기장 림 윤 희

세상에 널리 알려진 조선인삼

우리 나라에서 인삼을 약이나 건강음식재료로 써온 력사는 매우 오래다. 이미 삼국시기에 인삼은 특효약재로 널리 알려져있었으며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으뜸가는 보혈강장제로 리용되였다. 인삼의 원산지는 우리 나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인삼은 약효능이 높은 보약재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우리 나라 인삼에 대한 력사자료는 풍부하다. 《삼국사기》에는 이웃나라에 인삼을 보내준 이야기가 기록되여있다. 《고려사》, 《향약구급방》,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조선봉건왕조실록》,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등에는 인삼의 수출과 약효, 인삼의 산지, 해당 시기, 해당 지역의 인삼생산량, 인삼재배와 가공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되여있다.

우리 나라 인삼에 대하여서는 이웃나라에도 일찍부터 특효약으로 여러가지 력사자료에 기록되였다.

739년 발해사신이 일본에 갈 때 인삼 30근을 선물로 가져갔다. 이것이 일본에서의 인삼도입의 첫 기록이다.

인삼이 유럽에 소개된것은 17세기초였으며 특히 1653년에 표류되여 우리 나라에 체류한 네데를란드사람이 쓴 《하멜표류기》에서 조선특산물로 인삼을 소개한 다음부터 조선인삼에 대한 관심이 유럽땅에서 급격히 높아졌다.

《동의보감》에는 인삼이 오장을 보호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눈을 밝게 하고 기억력을 좋게 하며 허약한것을 막고 땀흘림을 멎게 한다고 기록되여있다.

인삼의 뿌리, 잎, 줄기, 꽃봉오리, 열매에는 배당체, 당류, 아미노산과 펩티드, 유기산, 미량원소, 여러가지 비타민 등이 들어있다.

또한 인삼은 강장, 면역기능항진, 소화흡수기능강화, 물질대사촉진과 같은 좋은 작용을 하며 특히 인삼사포닌이라는 성분은 항암, 방사선피해방지, 로화방지에 효능이 높다. 인삼은 몸이 허약할 때, 병의 회복기, 육체적 및 정신적피로 등에 보약으로 쓴다.

또한 인삼은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안될 때, 설사할 때 쓰면 치료효과가 좋으며 만성위염, 허탈증, 당뇨병, 가슴두근거림, 잠장애, 간염 등의 치료에도 좋다.

이로부터 우리 인민은 인삼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공하여 특색있는 민족건강음식, 건강음료 등을 만들어 식생활에 리용하였다. 인삼을 리용하여 만든 음식으로는 닭의 배속에 인삼(찹쌀, 통마늘과 함께)을 넣고 간을 치지 않고 통째로 물에 푹 끓인 삼계탕, 닭의 배속에 인삼을 넣고 단지에 담아 솥에서 찐 인삼닭곰, 인삼의 잔뿌리를 잠간 째서 물기를 없앤 다음 양념장을 두고 무친 인삼나물(미삼채), 인삼, 차좁쌀, 대추, 밤을 솥에 안치고 약한 불에 오래 끓인 인삼미음, 삶은 인삼에 물엿이나 꿀물을 두고 졸인 인삼정과, 밀가루와 사탕가루를 기본원료로 하고 인삼가루와 그밖의 영양제를 넣어서 만든 인삼과자, 인삼을 사탕물에 졸여서 말린 인삼당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인삼을 리용하여 만든 건강음료에는 인삼을 일정한 크기로 썰어 물에 넣고 끓인 다음 꿀을 두고 마시는 인삼차, 인삼을 알콜에 우려 만든 인삼술 등이 있다.

오늘도 우리 나라에서는 인삼재배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우리 나라의 인삼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리용되고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조 대 일

열음향기관

자료에 의하면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구조가 간단하고 수명이 길며 에네르기변환효률이 비교적 높은 열음향기관을 리상적인 열기관으로 주목하고 그 개발에 관심을 돌리고있다.

열음향기관은 기체를 가열, 랭각할 때 그것이 팽창, 수축되면서 소리를 내는 열음향현상을 리용하여 열에네르기를 소리에네르기로 변환하는 열기관이다.

열음향현상의 대표적인 실례로는 번개가 칠 때 공기가 몹시 가열되여 폭발적으로 불어나면서 우뢰소리를 내는 현상을 들수 있다.

열음향기관은 외연기관인 스터링기관과 대등한 32%의 효률을 보장하면서도 피스톤과 같은 기계적인 가동부분이 없어 기계적마모가 없으므로 사용수명이 거의 영구적이며 구조가 간단한 우점을 가지고있다.

열음향기관에 대한 연구개발은 1990년경에 정량적인 열음향리론이 정립되고 1999년에 효률이 30%정도인 열음향기관이 출현한것이 계기로 되여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2005년에는 650℃의 열원을 리용하여 효률이 32%인 열음향기관이 연구개발되였으며 2012년에는 300℃의 열원을 리용하는 열음향기관이 나왔다.

열음향기관은 물수강판으로 된 나팔모양의 통체와 그안에 설치된 축열체, 고온 및 저온열교환기로 이루어져있다.

열음향기관은 아직 출력이 낮아 광범히 실용화되지 못하고있지만 폐열이나 태양열을 열원으로 리용할수 있고 기계적가동부분이 없으므로 구조가 간단하고 수명이 긴 우점으로 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그 개발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최근 열음향기관의 개발에서 주목되는 동향은 우선 보다 낮은 온도에서 동작하는 기관을 개발하고있는것이다. 다음으로 기관의 효률을 보다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을 다그치고있는것이다.

열음향기관은 앞으로 태양열과 폐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뿐아니라 우주와 군사분야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광범히 리용될것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수풍발전소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독자의 편지

정성이 명약입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뜻하지 않은 일로 화상을 입고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였습니다.

다른 화상부위들은 피부이식수술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회복할수 있었지만 피사된 오른쪽발만은 절단하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여러 병원들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였기때문에 저는 수술이 피할수 없는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심장혈관외과 의료집단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과장 오경석, 담당의사 리경일선생님을 비롯한 과의 의료일군들은 협의회를 거듭하면서 발을 절단하지 않고 완치시킬수 있는 합리적인 치료방법을 찾기 위해 아낌없는 열정을 기울이였습니다.

리경일, 지철웅선생님들은 휴식도 뒤로 미루고 병원에 나와 저의 상처를 처치해주군 하였습니다.

상처부위에 약물이 닿을 때마다 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애를 쓰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친부모를 돌보는 자식같았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정성으로 날과 날들이 수놓아지는 속에 저는 병을 완치하고 다시 대지를 활보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런 훌륭한 의료일군들을 키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만경대구역 장흥1동 106인민반 리도현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해야 한다

최근 미국이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기 위한 부당한 간섭책동에 기를 쓰며 떠들고있다. 그것은 미행정부가 남조선당국자들속에서 북남대화소리만 나와도 질색하면서 비난과 압박을 강화하고있는것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국무성대변인을 내세워 《대화조건은 바뀌지 않았다.》느니, 《북과 대화하려면 핵무기가 제거》되여야 한다느니 하고 떠들면서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에 나서지 못하게 오금을 박았다. 그런가 하면 《북의 핵, 미싸일활동중단》이 이루어지면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축소할수 있다는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발언과 관련하여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노발대발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립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저들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될것》이라고 로골적으로 위협해나섰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에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강요하면서 북남관계개선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기 위한 공공연한 방해책동이다. 북남관계문제에 제멋대로 코를 들이밀며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는 미국의 파렴치한 반통일간섭행위는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민족내부문제인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에 외세가 끼어들어 이래라저래라 하는것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조국통일은 철두철미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으로서 그에 대한 외세의 간섭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민족문제를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자체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풀어나가는것은 지극히 정당한것으로서 여기에 누가 가타부타 할것이 없다. 우리 민족이 제땅에서 다시 한피줄을 잇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 외부의 승인을 받는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북과 남은 이미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것을 세계앞에 확약하였다.

미국은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장본인으로서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에 개입해나설 그 어떤 명분이나 체면도 없다. 미국에는 장장 70여년동안이나 우리 민족에게 분렬의 고통을 들씌운데 대해 무릎꿇고 사죄하며 북남관계문제에서 손을 떼고 제 소굴로 돌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만 있을뿐이다.

하지만 미국은 죄의식을 가질 대신 남조선의 친미주구들을 동족대결에로 내몰면서 북남관계개선을 한사코 방해하군 하였다.

민족내부문제에 외세가 끼어들면 복잡성만 조성되고 해결될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민족의 즐기찬 투쟁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통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은 바로 미국의 파렴치하고 횡포무도한 간섭책동때문이다.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남조선당국이 자주적인 립장에 서야 한다.

남조선의 력대 통치배들은 미국에 철저히 예속되여 독자적인 주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북남관계문제에서도 상전의 의사와 요구를 따르면서 겨레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미국은 꼬물만 한 자주성도 없는 괴뢰통치배들을 하수인으로 부려먹으면서 저들의 반통일적인 의사를 강압적으로 내리먹이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장벽만 높이 쌓았다.

미국은 전조선을 장악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패권적야망을 실현할 계책밑에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것을 몹시 꺼려하면서 그에 음으로 양으로 훼방을 놓았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첫날부터 자주권실현과 조국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주구들을 내몰아 아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미국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북남관계개선의 기회가 마련될 때마다 매우 못마땅해하면서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17년전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였을 때 미국이 당시 남조선집권자에게 모욕적언사를 쓰면서 심술사납게 놀아댄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후에도 남조선당국이 북남합의리행에 나서지 못하게 《속도를 조절》하라느니 뭐니 하면서 시시콜콜 간섭하고 뒤다리를 잡아챘다. 그러한 실례를 다 꼽자면 끝이 없다.

지금 미국이 남조선당국의 《대북립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비난과 압박을 강화하고있는것도 바로 그러한 반통일적인 간섭책동의 연장이다. 미국이 남조선의 현 《정권》이 등장하기 전부터 북남관계개선을 주장하는 민주개혁세력의 립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하게 주시해왔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 5월 남조선에서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언론들을 내세워 《당선자의 새로운 〈대북접근법〉이 트럼프행정부와 불협화음을 낼수 있다.》느니, 《최대압박정책에 부닥이 될수 있다.》느니 하고 갖은 협박을 다 하였다. 그에만 그치지 않고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저들과 박자를 맞추라고 우격다짐으로 강박하였다.

문제는 미국의 위협에 기가 질린 남조선당국의 태도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한때 미국에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민심의 호응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그의 행동은 영 딴판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위협적언사에 기가 죽어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제창하고 《제재압박》을 운운하는것은 정치적신의도 없고 자기들을 밀어준 초불민심도 모르는 배신행위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은 대중적인 초불투쟁으로 박근혜《정권》을 거꾸러뜨림으로써 괴뢰보수패당의 동족대결정책에 사형선고를 내리였다. 과거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복구하고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것이 바로 남조선민심의 목소리이다.

그런데 민심의 목소리에 누구보다 귀를 기울여야 할 남조선당국은 과연 어느 길로 가고있는가.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것을 탐가와하지 않는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박근혜역도의 반통일죄악을 되풀이한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간계에 놀아나 북남관계개선에 장애를 조성하는것이 결국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남기는 반역의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처신을 바로하여야 한다.

미국은 《북핵위협》이니 뭐니 하는것을 구실로 북남관계문제에 제멋대로 간섭하면서 동족을 리간시키고 대결과 긴장을 고취하는 비렬한 망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실지로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그 무엇을 하려 한다면 수치스러운 친미굴종의 립장과 단호히 결별하고 민족자주의 길로 돌아설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 지금처럼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견없이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흔들거리며 반통일책동을 일삼는다면 박근혜패당과 같은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관계문제,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방해책동을 민족단합의 힘으로 단호히 물리치고 자주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박 철 준

친미주구들의 비굴하고 가긍한 추태

남조선당국이 집권자의 첫 미국행각과 관련하여 친미사대의 구태에 빠지고 대미굴종의 사슬에 얽매여있는 저들의 가련한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내고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당국자들은 집권자의 미국행각을 앞두고 외신기자들과의 회견을 한다, 《참전유공자위로연》을 한다 하고 분주랑을 피우면서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이니, 《북의 위협》이니 하고 요란하게 떠들어댔다. 그야말로 미국상전의 비위를 맞추고 환심을 사보려는 비굴하고 가긍하기 그지없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새 《정권》이 출현한것과 관련하여 저들의 대조선정책과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에 장애가 조성될수 있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남조선당국을 계속 몰아대고있다. 미국은 《동맹의 근간이 흔들린다.》느니 뭐니 하고 눈알을 부라리면서 보수《정권》의 친미정책을 계속 이어가도록 강박하는가 하면 《대화조건》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북과 마주앉지 말고 《대북제재》공조에 적극 나서라고 련일 압력을 들이대고있다.

그런데 이미 집권전부터 미국으로부터 강한 심리적압박을 받고 여러 정책적문제들에서 주대없이 놀아대던 남조선당국자들은 지금에 와서는 도대체 친미보수《정권》이 끝장난것이 옳은가 하고 의심하지 않을수 없을 정도로 처신하고있다. 이자들은 집권자의 미국행각을 앞두고 미국무성 정무차관을 끌어들여 《한단계 높은 동맹강화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떠들면서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친미굴종자세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를 비롯한 집권자의 미국행각을 수행하는 자들은 제마끔 미국에 잘 보이고 백악관주인으로부터 눈도장을 받으려고 아첨경쟁이라도 하듯 《동맹강화》타령을 낯뜨겁게 외워대며 역겹게 놀아댔다. 지어 집권자까지 나서서 미국언론들과의 회견놀음을 벌려놓고 《대북정책》을 비롯한 주요현안들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와 《우호협력관계의 강화》에 대해 운운하였다.

집권자의 미국행각을 앞두고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신기자들과의 회견과 《참전유공자위로연》이라는데서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이 어쩌니저쩌니 하고 나발질한것은 바로 그 연장선에서 벌어진것이다. 이것이 선임자들의 수치스러운 대미추종정책을 그대로 되풀이하는것으로서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끝장내고 존엄있게 살것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초불민심을 배신하는 용납 못할 반역행위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묻건대 70여년동안이나 외세의 노예살이를 하며 치욕과 굴종을 강요당해온것이 이제는 지겹지도 않은가. 그토록 오래동안 목에 썩살이 박히도록 예속의 멍에를 끌며 미국의 주구노릇을 자청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망신스러운노릇인가.

미국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아무리 《동맹》이니 뭐니 하며 목을 빼들어도 미국은 그들을 한갖 허수아비, 식민지하수인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데 있다. 미국이 남조선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하는듯 한 냉새를 피우고있는것은 피뢰들에 대한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를 더욱 바싹 조이고 그들을 북침전쟁대포밥으로, 대아시아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씨먹기 위한 술책일뿐이다. 최근 트럼프행정부가 미군유지비의 대폭적인 증액과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고있는 사실, 《북의 위협》을 걸고 《싸드》배치를 강박하고 그 비용까지 내라고 윽박질하고있는 사실도 그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창피도 모르고 미국과의 《동맹》을 극구 추어올리며 그의 강화에 대해 메일같이 떠들어대고있으니 이 얼마나 낯뜨거운 처사인가.

현실은 남조선집권세력이 꼬물만 한 자존심도 없이 미국에 무작정 추종하며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과 대결하려고 기를 쓰고 날뛰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의 현 파국은 친미사대와 대미추종에 환장한 박근혜역적패당의 반민족적망동에 의해 빚어진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대미추종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지금처럼 미국에 아부하며 그와 야합하여 동족을 적대시하다가는 북남관계개선은 고사하고 집권 전기간 변변한 대화 한번 못해보고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박근혜역도의 가련한 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다.

라 설 하

미국은 불법적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담화

7월 1일은 미국이 일본 도꾜에 있던 《유엔군사령부》를 서울로 끌어들인 60년이 되는 날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1950년 6월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미국은 도꾜에 있던 미극동군사령부에 《유엔군사령부》의 감투를 씌워놓고 저들의 추종국가병력들을 조선전쟁에 투입하여 온 삼천리강토를 재더미로 만들고 평화적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1957년 7월에는 침략과 살륙으로 악명높은 《유엔군사령부》를 남조선에 끌어들임으로써 조선반도문제를 국제화하고 아시아판나토를 구축하여 대조선지배정책과 세계제패전략실현에 박차를 가하려는 흉심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군》소속 추종국가들이 무력을 철거시킬데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였지만 부당한 구실을 붙여 그를 존속시켜보려고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특히 미국은 새 세기에 들어와 남조선에서 반미기운이 고조되는 속에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까지 일정에 오르자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계속 틀어쥐고 조선반도유사시 저들의 추종국가무력을 신속히 투입하며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군사적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를 더욱 강화하는데 달라붙었다.

미국이 남조선에서의 각종 북침전쟁연습에 《유엔군》소속이라는 명목으로 추종국가병력들을 끌어들이고 조선반도정세가 긴장될 때마다 《유엔군사령부》를 내세워 그 무슨 《립장발표》놀음을 벌려놓군 한것은 그 단적실례이다.

올해에도 미국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영국,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단마르크, 프랑스를 비롯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추종국가병력들을 참가시켰는가 하면 남조선괴뢰들에게 《유엔군사령부》소속의 9개 나라와 《다자간 주둔군지위협정》이라는것을 체결하도록 강박하면서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를 부각시켜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지어 미국은 추종국가병력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것으로도 부족하여 저들 본토에서 다국적련합공중훈련 등 추종국가들과의 련합훈련을 빈번히 벌리며 북침전쟁연습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강화하는 놀음에 매달리고있는것이 유엔의 간판밑에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위선과 허위, 기만은 제국주의강도때들의 고유한 생존수법이지만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사명을 지닌 유엔의 이름을 세기를 이어가며 침략과 전쟁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있는 미국과 같이 파렴치한 날강도국가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력대 괴뢰통치배들은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안보리사회의 결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직되였다.》느니 뭐니 하며 적극 비호해나섰는가 하면 특히 박근혜역적패당은 《유엔군창전의 날》이라는것을 지정하고 해마다 《기념》하는 대국배족적행위까지 감행하였다.

새로 집권한 남조선당국 역시 이번 조선전쟁발발 67년을 계기로 《유엔군》고용병떨거지들을 끌어들여 《존경과 감사》니, 《희생정신을 기린다.》느니 뭐니 하며 엑스럽게 놀아댔다.

랭전시대의 유물이며 침략도구인 《유엔군사령부》를 어떻게 하나 존속시켜보려고 발버둥질하는 미국과 남조선의 친미사대분자들의 비렬한 책동은 자주를 지향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고 모독이다.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견지로 보나 유엔이 국제기구로서의 체면을 회복하는 견지에서 보나 《유엔군사령부》는 더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다.

미국은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일치한 주장과 요구대로 력사의 사형선고를 받은 불법적인 《유엔군사령부》를 지체없이 해체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침략무력과 모든 살인장비들을 걷어가지고 당장 물러가야 한다.

온 겨레는 명분도 없는 《유엔군사령부》를 내세워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며 대조선지배정책과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해 발광하는 미국의 침략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7월 1일
평 양

우리 공화국은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것이다

우리 나라 대표단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개토론회에서 천명

우리 나라 대표단이 6월 28일 대량살륙무기전파방지에 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개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밝히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우리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국제사회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라고 언명하시였다.

오늘 조선반도에 갈수록 험악한 전쟁국면이 조성되고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떠돌고있는 근본원인은 다름아닌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전쟁도발책동에 있다.

우리의 핵무력강화는 미국이 가해오고있는 전대미문의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박책동을 짓부시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뿐아니라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주권의 행사이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들을 영원히 독점해보겠다고 핵무기현대화를 비롯한 군비증강에 몰두하면서 다른 나라는 《핵》이나 《탄도》라는 말이 붙은 그 어떤 시험도, 발사도 하지 못한다는것이야말로 후안무치한 오만과 독선,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대표단은 계속하여 우리 공화국은 날로 무모해지는 미국의 핵위협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반역정당을 당장 해체하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21세기한국대학생련합》을 비롯한 대학생단체들이 6월 23일 《자유한국당》사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자유한국당》이 초불민심에 역행하여 국민을 업신여기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 패거리가 《한나라당》, 《새누리당》시기 반값등록금거짓말로 대학생들을 우롱하였다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리명박이 반값등록금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며 박근혜는 그 문제가 해결되였다는 식으로 대학생들을 기만하였다고 단죄하였다.

청산되여야 할 모든 악폐들을 만들어낸 《자유한국당》이 지금 《쇄신》이니, 《통합》이니 하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내들고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있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들은 오직 자기 리익만을 위해 돌아치는 《자유한국당》은 위선자추태를 그만두고 스스로 반성해보라고 요구하였다.

박근혜탄핵을 반대하고 《국정》롱락사건의 범인들을 비호하며 사회를 어지럽혔을뿐아니라 거짓말만 앞세우고 청년실업사태를 초래한 《자유한국당》은 당장 해체되여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비정규직철폐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

남조선의 로동운동단체들 대중적인 총파업투쟁 전개, 6만여명 참가

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6월 30일 서울에서 민주로총의 주최로 비정규직철폐, 최저임금인상, 로조활동권리쟁취를 위한 대중적인 총파업투쟁이 전개되였다.

민주로총산하 학교비정규직로조, 공공운수로조, 건설산업련맹, 금속로조, 전국교직원로동조합, 전국공무원로조를 비롯한 산별로조들에서 6만여명의 비정규직로동자들이 투쟁에 참가하였다.

먼저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총파업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최저임금인상과 비정규직철폐, 로조활동권리쟁취를 위해 사회적총파업을 벌리게 된다고 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결정적시기라고 말하였다.

이전 《정권》시기부터 학교비정규직로동자들은 임용직으로 분류되여 임금에 대해 말도 못하면서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려왔다고 그들은 밝혔다.

그런데 또다시 현 《정권》도 비정규직로동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미 충분히 기다렸지만 달라진것은 하나도 없다고 절규하였다.

그들은 후대들에게 가만히 기다려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것을 알려주기 위해,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당당한 로동자가 되기 위해 이번 투쟁에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철폐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라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그들은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철폐를 자체의 힘으로 쟁취하자고 호소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비정규직완전철폐》, 《근속수당 인상》, 《로조할 권리 쟁취》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종로까지 시위행진을 한 후 다시 집회를 가지고 생존권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날 공안당국은 75개 중대의 과잉경찰을 집회장에 투입하여 폭압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 파업중에 있는 로동현장의 로조대표들은 총파업선언문을 통해 당국이 최저임금인상으로 한끼 먹을수 있는 권리, 차별과 고용불안없이 일할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로조활동을 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민상!

《학교비정규직로동자의 파업은 정당하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6월 29일 《학교비정규직로동자의 파업은 정당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학교비정규직로동자들이 다시 파업에 들어가게 된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기때문이라고 까밝혔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철폐는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면서 사설은 《정부》가 각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문제를 대책하고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론의조차 없다고 비난하였다. 사설은 교육부문 비정규직로동자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로동자의 절반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교육현장에서 비정규직을 없애지 못하는 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문제해결은 말뿐이라고 사설은 폭로하였다.

권력야심가들의 추악한 개싸움

최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것들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들을 계기로 당권장악을 위한 계파싸움에 몰두하여 민심의 비난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박근혜의 력림에서 기생하면서 정쟁밖에 한것이 없는 보수패거리들이 지금 그 기질을 어떻게 드러내고있는가 보기로 하자.

당대표자리를 노린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의 개싸움은 홍준표역도가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본격화되였다. 《대통령》선거에서의 패배이후 미국으로 행소니 쳤다가 되돌아온 홍준표는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을 보고 놀랐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제 몸값을 올려보려고 어처구니없이 놀아댔다. 이자는 측근인물들을 통해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내돌리면서 당대표자리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뻔뻔스럽게 드러냈다.

이렇게 되자 이미전부터 홍준표의 재등장을 경계하고있던 《자유한국당》의 친박계패거리들은 《대통령》선거패배이후 자기들을 《바퀴벌레》라고 비난한 이자의 발언을 걸고들면서 《홍준표가 당을 분렬시키고있다.》, 《〈자유한국당〉이 따돌림당하는 길을 선택하고있다.》고 비난해나섰다. 친박계의 핵심인물들중의 하나로 알려진 원유철이라는 자는 당대표자리를 놓고 홍준표와의 정면대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의 다른 권력야심가들도 홍준표에 대한 비난전에 뛰여들고있다. 이자들은 홍준표가 《대통령》선거에서 패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당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피대를 돋구고있다.

약이 오른 홍준표역도는 반대파들을 《자기 영달에만 매달리는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을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떠들었다. 심지어 홍준표는 당이 살아남으려면 박근혜는 물론 친박계와도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친박계를 아예 매장시킬 기도를 로골화하였다.

이에 격분한 친박계는 지난 《대통령》선거당시에는 저들을 실컷 써먹다가 지금에 와서는 희생물로 만들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그러거나말거나 홍준표역도는 얼마전 친박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수우과제진》의 간판밑에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선거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한편 홍준표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파들의 공세를 약화시킬 심산밑에 《국정》롱단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면서 친박계패거리들내부에 쐐기를 치고 그것들을 분렬, 리간시키는 술책에도 매달리고있다. 이런 간계에 넘어간 일부 친박계인물들이 홍준표에게 가볼음으로써 결국 《자유한국당》내부는 더욱 사분오렬되여 서로 물고뜯는 란장판으로 되여버렸다.

《바른정당》의 처지도 이와 별로 다를바 없다. 당대표자리를 노리며 후보로 나선자들은 《낡은 보수를 청산하고 보수의 세대교체를 완성》하겠다고 나발질하면서 저저마다 지지표를 구걸하였다. 이런 속에 리혜훈이라는 자가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그에 불만을 품은자들이 집단적으로 탈당할 음직임을 보이고있다.

당권장악을 위한 보수패거리들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된것과 때를 같이하여 서로 지지세력을 긁어모아 보수진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두 보수야당의 싸움도 치렬해지고있다.

얼마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역도는 자기들이 《쇄신》만 잘하면 적지 않은 《바른정당》소속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할수 있다고 하면서 《바른정당》패거리들을 끌어당기려는 속심을 내비쳤다.

《바른정당》것들이 홍준표의 이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을리 만무하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홍준표의 피임에 빠진 탈당파의원 10여명을 《자유한국당》에 생눈알 뽑히듯 빼우고 이발을 갈아오던 《바른정당》패거리들은 홍준표가 자기 당을 망쳐놓으려 한다고 하면서 격분을 터뜨렸다. 이자들은 《홍준표가 아직 술이 덜 깼다.》고 하면서 홍준표가 있는 한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은커녕 련대도 없다고 선언하였다.

지어 《바른정당》패거리들은 《〈자유한국당〉은 제사날을 받아놓은 정당》, 《〈자유한국당〉은 빨아도 걸레》 등으로 맹비난하면서 본을 삭이지 못해하고있다.

당권장악과 보수진영의 주도권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개싸움을 벌리고있는 괴뢰보수패당의 구역질나는 망동은 민심의 지향과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권력야욕실현에만 환장이 되여있는 정치시정배들의 역겨운 추태이며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보려고 발버둥질을 치는 산송장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그에 대해서는 남조선 각계도 저저마다 비난을 퍼붓고있다. 인터네트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소속 의원들은 《한날한시에 의원직을 총사퇴하라.》, 《유치하기로 세계 1등인 〈자유한국당〉은 당장 없어져야 한다.》 등의 비난글들이 차고 넘치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민심의 지향과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저들끼리 물고뜯으며 정쟁에만 열을 올리는 보수패거리들의 망동을 지켜보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개혁》과 《혁신》이 아니라 한시바삐 해체되고 력사의 무덤속에 매장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이 전당대회를 언다 어쩐다 하며 민심을 끌어당기려고 요술을 피우고있지만 그것은 소용없는노릇이다. 인민들의 증오와 비판을 받는 괴뢰보수패당은 이미 빠져든 파멸의 함정에서 절대로 헤여날수 없다.

본사기자 리 성 호

ㄱ-71104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말소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